

중국어 교재를 통해 본 근현대 동아시아 지식의 흐름과 북경관화 음운 체계에 대한 인식*

구 현 아**

<目次>

- | | |
|--|--|
| I. 서세동점과 근현대 동아시아 지식 체계의 전환 | IV. 일본인 편찬의 중국어 교재의 한국 유입과 북경관화에 대한 인식 |
| II. 재중 서양인에 의한 북경관화에 대한 인식과 교재의 편찬 | V. 한·중·일 중국어 교재에 나타난 북경관화 음절표의 계승 양상과 음운적 차이 |
| III. 일본인 학자에 의한 재중 서양인 편찬 중국어 교재의 번역과 변용 | VI. 맺는말 |

I. 서세동점과 근현대 동아시아 지식 체계의 전환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에 동아시아에 유입된 서양인이 연구한 동아시아의 언어, 문학, 역사, 천문, 산수, 과학 등은 지식 체계의 전환을 가져왔고, 오늘날 각 학문 분야의 개념, 이론, 연구 방법의 정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서구의 지식은 동아시아의 낙후함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서양 열강 지배의 근거가 되었고, 서양인에 의해 유입된 지식은 종교 및 정치, 경제, 의료, 교육, 문화 등 분야에 적용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3086868).

** 용인대학교 용오름대학 교수

되며 삶의 양식의 바꾸어 놓았다.

근현대시기 중국은 서양인에게는 거대한 시장이자, 일본에는 침략의 목표가 되었고, 조선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사대관계에 있는 국가였기에, 중국어는 이 시기 서양인, 일본인, 우리나라 사람에게 모두 중요한 외국어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중국어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사람은 외교관, 선교사, 세관과 같은 재중 서양인이었다. 이들은 서양의 역사비교언어학을 기반으로 하여, 로마자라는 표음문자를 통해 주음하고, 발음을 기술했으며, 중국어의 품사나 시제를 분류하는 등, 중국어 연구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¹⁾ 이렇게 탄생한 중국어 연구서나 중국어 교재는 식민 관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선교사들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쉽게 접근, 소통하며 포교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정치, 법률, 철학, 경제, 문학 등과 관련한 서양의 주요 서적을 번역하여 서구 열강에 대항할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김동기 2003). 이때, 일본인들은 서양에서 편찬된 서적을

1) 19세기 초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인 조슈아 마쉬맨(Joshua Marshman), 월터 메드허스트(Walter Medhurst),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제임스 다이어 볼(James Dyer Ball), 토마스 웨이드(Thomas Wade) 등에 의해 중국어 발음에 대한 여러 가지 로마자 표기법이 창제되었다. 이들 표기법은 조셉 에드킨스(Joseph Edkins)의 *A grammar of the Chinese language commonly called the Mandarin Dialect*(1864)의 p.6이나 버나드 칼그렌(Bernhard Karlgren)의 *A mandarin phonetic reader in the Pekinese dialect*(1864)의 pp.10-18, 도날드 맥길리브레이(Donald MacGillivray)의 *A Mandarin-Romanized dictionary of Chinese*(1905)의 pp.vi-x에 정리되어 있다. 한편, 중국어 문법에 대한 연구는 17세기 중국에 들어온 천주교 선교사인 마티노 마티니(Martino Martini)가 쓴 *Grammatica Sinica*나, 프란치스코 바로(Francisco Varo)가 쓴 *Arte de la Lengua Mandarina*와 같은 서적에서 시도된 바가 있으며, 19세기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 더욱 활발히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의 *A Grammar of the Chinese Language*(1815), 칼 귀츨라프(Karl Friedrich Gützlaff)의 *Notice On Chinese Grammar*(1842), 빌헬름 로브샤이트(Wilhelm Lobsheid)의 *Grammar of the Chinese Language*(1864)등을 들 수 있다. 조경환, 「17·18세기 서양 선교사들의 문법서에 관한 소고」, 《중국문화연구》 제25집, 2014, 조경환, 「17~19세기 서양 선교사 문법서들의 시제 체계 연구」, 《中國語文論叢》 第73輯, 2016 참조.

바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중국에서 활동한 서양인이 간행한 서적을 번역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서양인이 쓴 중국어 사전, 교재, 어학 연구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인 선교사 빌헬름 로브샤이트(Wilhelm Lobsheid, 중문명 羅存德)의 *A Chinese and English Dictionary*(1866~1869)를 개정, 증보한 《訂增英華字典》(1883, 井上哲次郎), 영국인 외교관 토마스 웨이드의 《語言自邇集(Yü Yen Tzu Erh Chi, A progressive course designed to assist the student of colloquial Chinese as spoken in the capital and the metropolitan department)》를 번역한 《亞細亞言語集》(1879~1880, 廣部精), 《增訂亞細亞言語集》(1902, 廣部精), *Wên-chien tzu-erh chi*(1905)를 번역한 《清語階梯語言自邇集》(1880) 등이 있다.²⁾ 일본에서는 앞서 에도시대(江戶, 1603~1868) 중일 무역이 성행하며 중국 인과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회화 교육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는 정치, 외교, 군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어 교육이 실시되었다. 청일수호조약 체결 이후 정치 인사들과 교섭하기 위한 북경관화 학습의 필요성을 느낀 일본은 북경관화 교재, 사전, 연구서 등을 출판하였고, 특히 중국에서 군사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군사용 교재를 대량으로 편찬하였다.³⁾

2) 이외에도 《支那語大辭彙》(1914)가 *A Mandarin-Romanized dictionary of Chinese*(1862)나 *A Chinese and English vocabulary in the Pekinese dialect* (1871)의 체제와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사전들을 저본으로 삼아 증보, 번역한 것으로 추측된다.

3) 일본의 중국어 교육 전성기는 크게 첫째, 청일전쟁 이후, 둘째, 청일전쟁부터 10년이 지난 러일전쟁 기간, 셋째, 만주사변이 일어난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침략 시기까지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군사적 목적으로 군인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군사용 중국어 교재가 많이 편찬되었는데, 그 추이를 살펴보면 190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점점 출판 교재의 수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930년대에는 출판된 전체 중국어 교과서 중 절반 정도가 군사용 중국어 교재에 해당된다. 寇振鋒, 《甲午戰爭與日本軍用漢語熱探究—以日本軍用漢語教科書出版為中心》, 《抗日戰爭研究》 第1期, 2017, 寇振鋒, 《日俄戰爭與日本第二次軍用漢語熱—以日本軍用漢語教科書出版為中心》, 《抗日戰爭研究》 第3期, 2018, 寇振鋒, 「日本侵華戰爭時期的軍用漢語熱研究—以日本軍用漢語教科書出版為中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던 우리나라는 일본의 중국어 교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본래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후반 이후 민간에서 취업, 교역, 독립운동 등의 목적으로 중국어를 학습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이후에는 우리 국민을 중국어로 강제 이주시키고, 일제 식민 사업에 우리나라 국민을 동원할 목적으로 중국어 교육을 장려하였다. 이때 일본에서 번역한 재중 서양인의 중국어 교재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편찬한 중국어 교재도 상당수가 유입되어 우리나라 중국어 교재 편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최초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 官立漢語學校에서 《亞細亞言語集》, 《官話指南》(1882), 《增訂亞細亞言語集》, 《官話急就編》(1904)과 같은 일본의 중국어 교재를 사용하였고, 20세기 초에는 일본에서 사용한 중국어 교재가 그대로 들어와 사용되었다.⁴⁾

중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 표준어로 인식된 ‘북경관화’를 잘 구사하는 일이었다. 북경관화가 당시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官方的 공식 언어임을 처음으로 기록한 이는 재중 서양인이었다. 영국인 외교관, 세관을 역임한 토마스 웨이드는 서양인 관료의 중국어 실력이 낮은데다 이들이 배울 교재조차 매우 부족함을 느끼고, 북경관화의 음운, 어법 체계를 정리하고 북경관화 본문으로 구성된 최초의 종합 교재인 《語言自邇集》을 펴냈다. 《語言自邇集》이 중국, 일본, 한국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語言自邇集》 이후 재중 서양인에 의한 교재 편찬의 중심이 북경관화 교재가 전환되었고, 일본에서는 《語言自邇集》 번역서인 《亞細亞言語集》, 《增訂亞細亞言語集》 뿐만 아니라 여기 출

心], 《軍事歷史研究》 第3期, 2023 참조.

- 4) 국립한어학교에서 학년별, 과목별 중국어 교재 사용 상황은 이광숙(2011)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소은희·신윤희(2010)는 《支那語讀本》(1938), 《華語要訣》(1938), 《支那語語法篇》(1938), 《對譯實用支那語會話篇》(1939) 등 국내 교육기관에 소장된 제2차,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 사용한 중국어 교재 총 92권을 제시하였는데, 필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일본인 편찬 중국어 교재를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 170여 권의 목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추후 연구물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현한 북경관화 음절표인 〈練習燕山平仄編〉을 모방한 《華語跬步》(1886), 《自邇集平仄編四聲聯珠》(1886, 이하 《四聲聯珠》로 지칭)와 같은 교재가 편찬되었고, 우리나라의 《華語精選》(1913), 《速修漢語自通》(1915), 《支那語集成》(1921)에도 이를 모방한 북경관화 음절표가 실렸다.

서세동점과 식민지로 대표되는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은 ‘재중 서양인에서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는 지식의 통로를 만들어냈다. 중국어에 대한 지식은 이 통로를 따라 각국에 유입되고 전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식의 흐름을 중국어 교재, 그 중 《語言自邇集》에 제시되었던 북경관화 음절표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북경관화 음절표의 탄생과 수용, 변용은 각국에서 북경관화를 중요한 관화로 인식하게 된 역사적 계기, 중국어 교육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2, 3, 4장에서 재중 서양인에 의한 중국어 교재 편찬과 일본, 우리나라에서의 중국어 학습 및 북경관화 학습으로의 전환, 관련 교재 및 북경관화 음절표 수록 양상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각국에서 편찬된 북경관화 음절표의 체계와 내용 및 수록 음절을 비교 분석하여, 북경관화 음절표의 수용과 변용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재중 서양인에 의한 북경관화에 대한 인식과 교재의 편찬

중국에 들어온 대표적인 서양인은 크게 외교관, 세관, 선교사를 들 수 있다. 먼저, 외교관은 남경조약 체결 이래로 외교 교섭 업무, 각종 조약의 검토와 이행, 통·번역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세관은 海關정책 및 세율의 결정, 海關 내외부의 상벌, 선박 및 정박지의 순찰과 관리 감독, 영어 및 중국어 문서 번역 및 기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⁵⁾ 외교관의 경우 영사관에 ‘학생 번역가(student interpreters)’이라 불리는 영사관에 채용된 직원

5) 김찬, 김범준, 〈개항기 세관제도에 관한 연구-중국 廈門의 경우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0호, 2009, 117-127쪽.

이 있었으나, 이들은 문서를 베끼거나 보고서 정리하는 업무 밖에 할 수 없었다. 이때 북경관화에 능통한 토마스 웨이드가 이들을 2년 동안 북경공사관에서 교육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가 편찬한 《語言自邇集》으로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였다.⁶⁾ 또한, 19세기 말 영국 총 세관을 역임한 로버트 하트(Robert Hart)가 《海官總稅務士署通令》을 반포하여 중국 안의 외국 국적 세관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중국어를 학습하도록 명하였고, 《語言自邇集》, 토마스 미도스(Thomas Meadows)의 《隨筆》, 사무엘 윌리엄스(Samuel Williams)의 《中國總論》 등을 이용하여 중국어를 학습하였다.⁷⁾

선교사는 중국의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포교를 해야했기에, 이들은 가장 중국 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으며, 당시 중국어 교재를 가장 많이 편찬한 핵심적인 직업군이었다.⁸⁾ 초기 청(淸)정부는 금교 정책과 폐관 자수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선교사는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⁹⁾ 이들은 성경 번역과 기독교 잡지를 발행하고, 중국어 교재,

6) 王禮華, 吳穎, 《近代來化外交官漢語教材研究》,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5, 1-10쪽.

7) 王禮華, 吳穎, 《近代海官洋員漢語教材研究》,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6, 1-15쪽.

8) 아래 표에 제시된 선교사 이외에도, 존 차머스(John Chalmers), 보니 사무엘 윌리엄(Bonney Samuel william), 데니스 벨필드(Dennys Belfield), 카스테어스 더글라스(Carstairs Douglas)등과 같이 많은 선교사에 의해 중국어 교재가 편찬되었으며, *Syllabary of the Shanghai vernacular*(上海土白字集), *An English-Chinese vocabulary of the shanghai dialect*와 같이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중국어 교재를 편찬한 경우도 있었다. 필자가 초보적으로 조사한 150여 권의 재중 서양인이 편찬한 중국어 교재 중 약 120여 권이 선교사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

9) 서양 선교사가 중국어를 배우거나, 중국인이 서양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금지되었다. 예를 들어,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은 두 명의 천주교 신자로부터 중국어를 배웠는데, 이들은 청 정부에 의해 발각되어 처형되는 것보다 자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늘 독약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 천부적인 언어 능력을 지닌 소수의 서양인이 쓴 중국어 교재에 의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자딘메시선(Jardin Matheson, 怡和洋行)의 직원이자 외교 사절, 언어 천재였던 로버트 톰(Robert Thom)이 지은 *The Chinese Speaker*(1846)가 북경관화 학습에 활용되었고, *Chinese and English Vocabulary*(華英通用雜話)(1843)는 행정 기관, 회사, 개인에게 무료 배포되어 남경조약 체결 이후 개방

사전, 문학, 중국 역사 관련 저서를 짓는 등 문서 선교에 집중했다. 이 문헌을 통해 재중 서양인은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었고, 서양 세계에 중국 본격적으로 소개될 수 있었다. 선교사는 언어,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녔기 때문에 외교 사절, 통번역 업무, 세관까지 겸직하는 등 재중 서양인 사회에 있어 중핵 역할을 했다.¹⁰⁾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중국에 체류했던 주요 서양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	성명 (영문/중문)	국적	생몰년	중국어 교재
선교사	Joshua Marshman /馬士曼	미국	1768~ 1837	<i>Dissertation on the Characters and Sounds of the Chinese Language(1809), Elements of Chinese Grammar: With a Preliminary Dissertation on the Characters, and the Colloquial Medium of the Chinese, and an Appendix Containing the Tahyoh of Confucius with a Translation(1814)</i>
	Robert Morrison /馬禮遜	미국	1782~ 1834	<i>A Grammar of the Chinese Language (1815),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ree Parts(1815~1822), Vocabulary of the Canton Dialect: Chinese words and phrases(1828)</i>

된 5개 항구에서 외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이 의사 소통을 하는데 널리 쓰였다. 張功臣, 《洋人舊事: 影響近代中國歷史的外國人》, 北京: 新華出版社, 2008, 3-22쪽, 기독교일보(<https://kr.christianitydaily.com/>) '선교사 모리슨, 중국어 성경 번역에 착수하다', 内田慶市, 《誦讀華英通用·凡例》, 《近代東西語言文化接觸研究》, 大阪: 關西大學文學部, 2001, 280-282쪽 참조.

- 10) 영국인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은 동인도회사의 중국어 번역관으로도 활동하였다. 1816년 영국이 특사인 윌리엄 피트 애머스(William Pitt Amhers)를 파견할 때 그의 통역관을 담당하였으며, 1833년 중국 주재 영국 상무 감독관이 성립되자 영국 정부는 그를 비서 및 통역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미국 개신교 공리회 선교사였던 엘리야 브리지먼(Elijah Bridgman)은 1844년 중미 양측이 담판할 때, 미국 대표인 케일럽 쿠싱(Caleb Cushing)의 통역관을 맡았으며, 조약의 제정과 번역에도 관여하였다. 이때 사무엘 윌리엄스도 이 업무에 동참하였다.

직업	성명 (영문/중문)	국적	생몰년	중국어 교재
선교사	Walter Medhurst /麥都思	영국	1796~ 1857	<i>A Dictionary of the Hok-këen Dialect of the Chinese Language: According to the Reading and Colloquial Idioms: Containing about 12,000 Characters (1832),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1848), Chinese and English Dictionary, containing all the words in the Chinese Imperial Dictionary, arranged according to the radicals(1842~1843)</i>
	James Dyer Ball /波乃耶	미국	1796~ 1866	<i>Easy Sentences in the Hakka Dialect, with a Vocabulary(1881), Cantonese Made Easy: A Book of Simple Sentences in the Cantonese Dialect, with Free and Literal Transl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Rendering of English Grammatical Forms in Chinese(1888), How to write Chinese : containing general rules for writing Chinese, and particular directions for writing the radicals(1905)</i>
	Elijah Bridgman /裨治文	미국	1801~ 1861	<i>A Chinese chrestomathy in the Canton dialect(1841)</i>
	Samuel Williams /衛三畏	미국	1812~ 1884	<i>Easy lessons in Chinese: or progressive exercises to facilitate the study of that language(1842), English & Chinese vocabulary in the court dialect(1844), Ying Wá Fan Wan Tsüt Iú: A Ton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e Canton Dialect(1856),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arranged according to the Wu-fang Yuen Yin, with the pronunciation of the characters as heard in Peking, Canton, Amoy, and Shanghai(1874)</i>

직업	성명 (영문/중문)	국적	생물년	중국어 교재
선교사	James Legge /理雅各	영국	1815~ 1897	<i>The Chinese Classics: with a Translation, Critical and Exegetical Notes, Prolegomena, and Copious Indexes (1861~1872)</i>
	Wilhelm Lobschild /羅存德	독일	1822~ 1893	<i>Chinese-English grammar(1861)</i>
	Joseph Edkins /艾約瑟	영국	1823~ 1905	<i>A Grammar of Colloquial Chinese: as exhibited in the Shanghai dialect(1853), A grammar of the Chinese colloquial language commonly called the Mandarin dialect(1857), Progressive lessons in the Chinese spoken language: with lists of common words and phrases, and an appendix containing the laws of tones in the Peking dialect(1864), A vocabulary of the Shanghai dialect(1869)</i>
	Calvin Mateer /狄考文	미국	1836~ 1908	<i>A course of Mandarin lessons, based on idiom(1892)</i>
	Chauncey Goodrich /富善	미국	1836~ 1925	<i>Radical index to Pocket dictionary and Pekingese syllabary(1893), A pocket dictionary (Chinese-English) and Pekingese syllabary(1923)</i>
	Frederick Baller /鮑康寧	영국	1852~ 1922	<i>A vocabulary of the colloquial rendering of the Sacred edict(1892), A Mandarin primer(1911)</i>
외교관	Thomas Wade /威妥瑪	영국	1818~ 1895	<i>The Xin jing lu; or, Book of experiments; being the first of a series of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Chinese (1859), (Yü Yen Tzu Erh Chi), a progressive course designed to assist the student of colloquial Chinese as spoken in the capital and the metropolitan department(1867/1886)</i>

직업	성명 (영문/중문)	국적	생몰년	중국어 교재
외 교 관	Walter caine Hilier /禧在明	영국	1849~ 1927	<i>(Yü Yen Tzu Erh Chi)</i> , a progressive course designed to assist the student of colloquial Chinese as spoken in the capital and the metropolitan department(1886), <i>One thousand useful Chinese characters</i> (1907), <i>The Chinese Language and How to Learn it: A Manual for Beginners</i> (1916)
	Herbert Allen Giles /翟理斯	영국	1845~ 1935	<i>Chinese without a teacher</i> (1872), <i>A dictionary of colloquial idioms in the Mandarin dialect</i> (1873), <i>Synoptical studies in the Chinese character</i> (1874)
	Thomas Lowndes Bullock /布勒克	영국	1845~ 1915	<i>Progressive exercises in the Chinese written language</i> (1902)
세 관	George Carter Stent /司登得	미국	1833~ 1884	<i>A Chinese and English Vocabulary in the Pekinese Dialect</i> (1871), <i>A Chinese and English pocket dictionary</i> (1874), <i>A dictionary from English to colloquial Mandarin Chinese</i> (1905)
	Acheson, James /詹姆士. 艾奇逊	미국	?~?	<i>An index to Dr. Williams'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 arranged according to Sir Thomas Wade's system of orthography</i> (1879)
	Hirth, Friedrich /夏德	독일	1845~ 1927	<i>Textbook of documentary Chinese, with a vocabulary, for the special use of the Chinese customs service</i> (1885), <i>Notes on the Chinese documentary style</i> (1909)
	Pietro Poletti /布列地	이탈 리아	1846~ 1915	<i>A Chinese and English dictionary: arranged according to radicals and sub-radicals/and sub-radicals</i> (1907), <i>A glossary of the principal terms and words occurring in postal documents</i> (1909)

서양인이 편찬한 중국어 교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로마자로 발음을 표기하였다.¹¹⁾ 저자들은 각자 서양인 화자가 보았을 때 중국어음에 가깝게 발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기법이 시도하였다. 이는 《語言自邇集》에 나타난 웨이드식 표기법(Wade's System)의 태동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후대 한어 병음의 제정에도 영향을 끼쳤다.¹²⁾ 둘째, 중국의 표준어, 관화의 종류, 언어 사용 상황 등 상세한 언어학적 기술이 추가되었다. 이는 이전에 중국에서 편찬된 음운학 관련 문헌이나 한국의 근세 시기 편찬된 중국어 교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부분이다.

<p>Table of syllables, made by joining the initials and finals</p> <p>奇 古 中 經 革 根 庚 于 岡 歐 各 賦 乞 鈞 經 刻 題 坑 龜 康 科 湯 低 的 丁 得 登 大 達 丹 當 多 冬 標 剔 聽 忒 透 場 貪 湯 地 脫 泥 諾 忒 察 內 能 納 南 能 那 諾 比 必 賓 白 悲 奔 崩 巴 波 邦 波 滂 披 匹 貧 拍 配 盆 盆 佩 攀 滂 滂 滂 迷 覓 民 明 毛 陌 梅 門 門 門 門 門 門 希 吸 欣 典 赫 喉 亨 寒 坑 河 合 西 思 夕 辛 星 塞 僧 薩 三 桑 桑 索 詩 十 舍 舌 申 申 沙 殺 傷 傷 均 日 惹 然 仁 仍 然 種 若 摘 資 疾 浸 晶 賊 怎 哨 響 響 穿 主 作 妻 親 戚 親 青 潤 會 器 資 資 器 錯 知 隻 遮 漬 眞 眞 眞 眞 眞 眞 眞 眞 痴 尺 車 徹 臣 稱 茶 家 羅 昌 粹 聲 力 辭 剛 勒 雷 擺 攔 刺 蘭 羅 羅 羅 而 威 溫 瓦 空 舞 江 當 當 金 因 耶 葉 鴉 鴨 夾 藥</p>	<p>제 2장(CHAPTER II) 관화 발음의 체계(SYSTEM OF MANDARIN PRONUNCIAT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정과 공공 기관에서 쓰이는 발음을 관화(KWAN HWA) 혹은 관화 방언(mandarin dialect)라 한다. 2. 보통 사람들은 지역 이름으로 관화의 종류를 나눈다. 예를 들어 산둥 관화와 같다. 3. 남경관화(NANKING MANDARIN) 4. 북경관화(PEKING MANDARIN) 5. 북방 지역(NORTHERN PROVINCES) 6. 서부 관화(WETERN MANDARIN) 7. 관화의 기준(CRITERION OF MANDARIN) 8. 관화의 표준(STANDARD OF MANDARIN)
---	---

〈그림 1〉(좌) 조셉 에드킨스 *A grammar of the Chinese colloquial language commonly called the Mandarin dialect*의 〈Table of Syllables〉, PART 1, CHAPTER II, 〈SYSTEM OF MANDARIN PRONUNCIATION〉

11) 각주 1) 참조.
 12) 웨이드식 표기법을 옥스퍼드 제2대 중국어 교수를 역임한 허버트 자일스(Herbert Giles)가 수정한 것이 웨이드-자일스 표기법(Wade-Giles)이며, 이는 1958년 漢語拼音方案을 반포하기 이전까지 중국 인명, 지명 등의 영문 표기에 보편적으로 쓰였다. 병음과 웨이드-자일스 표기는 성모 표기에서 차이를 많이 보이는데 ch를 zh 혹은 j, ch'를 ch 혹은 q로 표기하고, k를 g, k'를 k, hs를 x로, sz를 s로, j를 r로, ts'를 c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운모에서는 ieh를 ie로, üeh를 ue로 표기한 소수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치한다.

〈그림 1〉의 좌측에 제시된 음절표에서는 에드킨스가 만든 성모, 운모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과 이에 대응하는 각 음절의 예시자가 정리되어 있다. 또한, 저작의 ‘관화 발음의 체계’에는 관화의 정의와 종류, 각 관화의 사용 지역, 음운적 특징, 표준음의 특징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 책에서는 성모와 운모의 종류, 《中原音韻》에 나타난 운부와 당시 북경관화 운모의 비교, 성조의 종류와 지역별 성조의 특징 등 공식적, 통시적 음운 특징까지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자세한 기록은 기존 문헌에서 출현한 바가 없다. 셋째, 근현대 시기 중국어 교재는 서양의 활판 인쇄로 편찬된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근대 인쇄술은 서구 세력 확장과 기독교 선교 활동으로 16세기 이미 중국, 일본 등지에 전파되었으나, 이들 국가에서 활판 인쇄술을 이단시하여 2백여 년 동안 방치되었다. 그러나, 1815년 로버트 모리슨의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가 중국에서 인쇄되며, 재중 서양인에 의해 본격적으로 근대 인쇄술을 사용한 문헌이 편찬되기 시작했다.¹³⁾ 종합하여 볼 때, 재중 서양인에 의한 중국어 교재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의 전환을 이끌어 냈다.

19세기 초에 중국에 들어온 서양인은 17세기부터 서양의 상업 유통이 허가된 광동십삼행(廣東十三行)이 있는 광동에 주로 머물렀고, 남경조약 체결 이후에는 廣州, 廈門, 福州, 寧波, 上海가 개항되었는데, 이들의 활동 범위는 주로 남방지역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19세기 편찬된 중국어 교재는 주로 남방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남방관화를 넓은 지역에서 받아들여지는 표준적인 관화로 묘사하면서도 당시 가장 유행하는 관화가 북경관화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13) “대한인쇄문화협회(<https://http://www.print.or.kr/>)”, ‘[근대] 서양 인쇄술의 전래’, 검색일: 2024년 2월 25일.

〈표 1〉 중국의 표준어에 대한 서양인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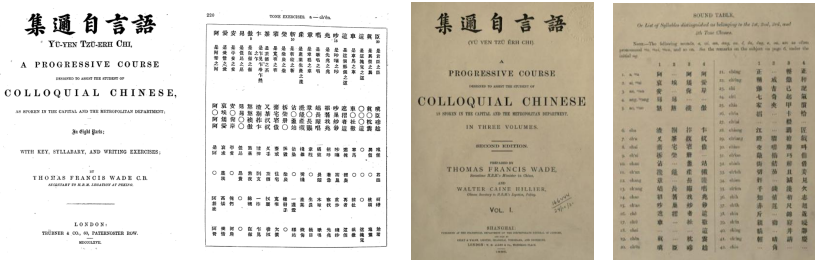
Robert Morrison, <i>A dictionary of Chinese</i> (1815)	북경관화는 현재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으며, 현 왕조가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 가장 권위를 얻는 방언이 될 것이다.
Robert Thom, <i>Esop's Fables</i> (1840)	‘남관화(南官話)’는 ‘正音(ching yin)’, ‘표준음’ 혹은 ‘통행하는 말’, 즉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다. 이는 중국어의 표준 구어로, 남경 방언을 의미한다. ‘북관화(北官話)’는 다른 말로 ‘京話(King-hwa)’, ‘京腔(King-keang)’로도 불리는데, 즉 북경의 언어를 말한다. ...(중략)...현 왕조의 황제들은 항상 북경에 거주했고, 그들은 모두 북방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요즘 더 나은 지위로 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가능한 한 북경말을 구사하려고 한다. ...(중략)...모든 관공서에서는 북경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Joseph Edkins, <i>Mandarin Dialect</i> (1857)	북경관화는 법정의 언어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한다. 방언 성분을 제외하면 제국의 표준어(kwan hwa)가 된다.
Thomas Wade, <i>《語言自邇集》</i> (1869)	북경관화는 통역가가 배워야만 하는 방언이다. ...(중략)...그가 북경말을 잘한다면 관화를 발화하는 현지인을 이해하거나 그에게 이해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Samuel Williams, <i>A syllabic dictionary</i> (1874)	중국의 지식인이 구사하는 언어를 관화(kwanhwa), 공식적인 언어(official language)라고 명칭하며, 이는 법정 혹은 관방의 언어로 알려져 있다. 관화는 양자강 이북에서 발음되는 어휘나 어법의 구조는 큰 차이 없이 통용된다. ...(중략)... 북경관화는 런던(London)의 영어나 파리(Paris)의 프랑스어처럼 가장 유행하고 세련된 방언으로, 제국의 법정 언어로 인정받고 있다.
Calvin Mateer, <i>A course of Mandarin lessons</i> (1892)	북방의 중국어는 법정의 언어로, 중국 전 지역에서 가장 유행하며 공식적인 언어라고 승인받는 북경관화에 의해 지배 받고 있다.
Herbert Giles, <i>China and the Chinese</i> (1902)	북경의 방언은 지금 중국의 표준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1425년 이전 수도가 남경이었을 때, 남경방언이 가장 유행하는 중국어였다. 지금은 북경관화가 모든 중국인 관리에게 있어서 가장 말할 가능성이 큰 언어이다.

상술한 문헌 중 에드킨스의 *Mandarin Dialect* 이후부터 중국의 표준어가 북경관화라는 서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語言自邇集》 이후의 문헌에서는 북경관화가 중국의 공식 언어라고 적시하고 있다. 19세기 초반 만해도 중국에서는 남방관화가 표준어로 받아들여졌지만, 당시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북경관화가 표준어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다. 《語言自邇集》의 흥행으로 북경관화가 표준어라는 것을 서양인도 널리 인식하였고, 북경관화는 이후 서양인 편찬 중국어 교재의 주요 대상이 되었으며, 웨이드식 표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語言自邇集》은 완성되기 이전, 웨이드는 《語言自邇集》의 전신이 되는 교재를 몇 권 저술했다. 그는 홍콩에서 중국어 비서를 맡으며 1859년 《尋津錄(*The Xin jing lu; or, Book of experiments; being the first of a series of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Chinese*)》를 편찬했다. 또, 1860년에는 《問答篇》과 《登瀛篇》을 저술했는데 이는 후대 《語言自邇集》 본문의 일부가 되었다.¹⁴⁾ 《語言自邇集》은 초판과 第二版의 체제와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초판은 1867년 편찬되었고, 모두 네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은 「발음」, 「부수」, 「散語章」, 「問答章」, 「續散語」, 「談論篇」, 「練習燕山平仄篇」, 「言語例略」으로 이루어졌고, 제2권은 제1권의 「散語章」 이후 여섯 장에 대한 영문 번역이며, 제3권은 「平仄篇」, 제4권은 한자 쓰기 연습이다. 第二版은 크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권에는 발음, 필획,

14) 토마스 웨이드는 1842년 제1차 아편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홍콩에 왔으며, 천재적인 언어 습득 능력으로 영국 군대의 통역을 맡고, 이후 영국 상무 감독인 존 데이비스(John Davis)의 중국어 부서관을 역임했고, 전권대사인 조지 보넘(George Bonham)의 비서를 맡기도 했다. 1852년 병환으로 영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상해 영사관의 부영사로 일하였다. 그는 상해에서 업무하는 동안 중국어 교재가 부족하고, 중국 주재 서양인 관료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고, 그는 홍콩 주재 총독인 존 버우링(John Bowring)의 중국어 담당관을 맡게 된다. 이때 웨이드는 그의 중국어 교사 잉룽텐(應龍田, Ying Lung-t'ien)과 거주하게 되는데, 《語言自邇集》에 그와 대화한 내용이나 직접 쓴 문장이 실리기도 했다. Cooley James, 《Jr. T. F. Wade in China: Pioneer in Global Diplomacy 1842~1882. (T'oung Pao, Revue Internationale de Sinologie, number 11.)》, Leiden: E. J. Brill, 1981, 9-10쪽.

「散語章」, 「問答章」, 「踐約傳」, 「성조 연습」, 「詞類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권은 제1권의 내용에 대해 주음과 해설을 덧붙이고, 단어의 발음, 예시문을 나열하였다. 제3권은 본문의 단어 목록, 한자 색인, 「북경관화 음절표(Peking Syllabary)」, 한자 쓰기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第二版은 웨이드의 단독 저작이 아닌, 영국 공사관 비서인 월터 힐리에르(Walter Hillier)와 공저한 것이며,¹⁵⁾ 힐리에르는 《語言自邇集》의 성조와 「問答章」를 감수하고, 「散語章」의 연습을 저술하는 일에 참여했다.¹⁶⁾ 이러한 과정을 통해 《語言自邇集》 第二版은 북경관화의 발음, 어휘, 한자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로 재탄생한 것이다.



〈그림 2〉 《語言自邇集》 初版, 〈성조 연습(Tone Exercises)〉, 《語言自邇集》 第二版, 〈음절표(Sound Table)〉

초판에서 〈練習燕山平仄篇〉, 혹은 TONE EXERCISES으로 지칭된 성조 연습은 북경관화 성모, 운모, 성조 및 예시자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第二版에서 이 부분은 중문 제목은 〈練習燕山平仄篇〉, 영문 제목은 THE TONE EXERCISES로 수정되었다. 第二版 第一卷에는 음절표가 수록되어

15) 월터 힐리에르는 통역관, 외교관,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의 교수를 역임했고, 1889년에서 1896년까지 주조선 영국 총영사를 역임하여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 'Walter Hillier' 검색, 검색일: 2024년 2월 26일.

16) 신원철·구현아·노혜정, <<어언자이집(語言自邇集)>> 제2권 서문 역해, <<중국어문논역총간>> 49집, 2021, 249-251쪽.

있고, 이는 초판에 실린 음절표의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第二卷의 PART II에는 각 성조의 특징, 서로 다른 성조에서 운모의 발음 변화, 음절 대표자 및 예시 어휘의 발음, 뜻풀이를 실었다. 즉, 第二版의 성조 연습은 초판의 확대 증보판으로, 서양인 학습자가 최대한 북경관화의 발음에 가깝게 소리 낼 수 있도록 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문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북경관화의 모든 음절에 대한 예시자, 예시 어휘, 발음 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語言自邇集》가 최초이며 이후, *A Dictionary from English to Colloquial Mandarin Chinese*(1905), *A Mandarin-Romanized of Dictionary Chinese, including New Terms and Phrases, with New Supplement*(1905), *A Chinese and English vocabulary in the Pekinese Dialect*(1871), *Radical index to pocket dictionary and Pekingese syllabary*(1891), *A pocket dictionary (Chinese-English) and Pekingese syllabary*(1891), *An English-Chinese Dictionary of Peking Colloquial*(1910) 등 이후 쓰여진 중국어 교재의 표기법과 음절 체계의 기준이 되었다.

Ⅲ. 일본인 학자에 의한 재중 서양인 편찬 중국어 교재의 번역과 변용

중국어에서의 북경관화의 위상과 외교 무대에서의 영향력은 일본에도 전해졌다. 일본인들은 1871년 9월 13일 清日修好條規를 조인하면서 북경관화가 對清 외교 협상 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북경관화를 학습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사실 일본은 근세 시기 중일 무역이 성행함에 따라 중국어 회화 학습을 시작한 바 있다. 에도시대에 유일한 중일 무역 창구인 나가사키(長崎)에서 중국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자, 에도 막부는 중일무역을 관리, 통제하며 필수품 조달을 위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통역, 무역, 중국인 생활 관리를 맡는 唐通事가 설치되었다.¹⁷⁾ 최초의 당 통사는 일본에 정착한 중국인이었으나, 이후의 당통사는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혈인이 담당하기도 했다. 당통사는 세습할 수 있었으며, 무역, 통역 업무를 통해 막강한 부와 명예를 축적하였다. (山脇梯二郎 1964)

이때 중국어는 ‘唐話’라 불리며 교육되었다. 당통사를 후손에게 계승시키기 위해 당통사 가정에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국어와 중국에서 유입된 지식과 문화를 배우려는 일반사람들도 중국어를 배웠다. 이때 《三字經》, 《大學》, 《論語》, 《孟子》 등이 활용되었고, 《三國志演義》, 《水滸傳》, 《西遊記》와 같은 백화소설이 회화 학습서로 활용되었으며, 《訳詞長短話》, 《訳家必備》, 《唐通事心得》, 《唐話》등과 같은 어휘 학습서가 편찬되기도 했다. 특히, 당통사를 역임했던 오카지마 칸잔(岡島冠山)의 《唐話纂要》, 《唐話使用》, 《唐譯便覽》 같은 저서가 중국어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다.¹⁸⁾ 이 교재의 음계는 모두 남경관화음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唐話使用》에서 유기음이 소실되고, 宕江攝 입성자를 才段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당시 남경관화음의 특징을 보여준다. (中村雅之 2015)

에도 막부 말기에 나가사키 지역의 관기 개혁이 단행되며 당통사 제도가 해체되었으며, 메이지 시대가 되자, 나가사키의 어학소의 기능은 1874년 廣運館으로 이전되었는데, 여기서 가르친 중국어 역시 나가사키에서 가르친 당화를 계승한 것이었다. (六角恒廣, 1988:32) 1871년에는 중국어를 구사하는 관리를 양성할 목적으로 도쿄에 한어학소가 설치되었는데, 이곳의 교사진은 전원 당통사 출신으로 그들이 사용한 남경관화를 교수하였다. (中嶋幹起, 1999:867-868)

17) 山脇梯二郎(1964), 《長崎の唐人貿易》, 東京: 吉川弘文館, 林陸朗(2000), 《長崎唐通事—大通事林道榮とその周辺—》, 東京: 吉川弘文館 참조.

18) 이 교재 안에는 당통사가 사용하던 많은 무역 관련 용어가 포함되었다. 朱田安, 〈深見玄岱について—近世日本における中国語の受容に関する一考察—〉, 《千葉商大紀要要》 41, 2004, 73쪽.

남경관화를 중심으로 하던 일본의 중국어 교육은 청일수호조약 이후로 북경관화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1876년 동경외국어학교에서는 북경인 薛乃良을 교수로 초빙하고, 《語言自邇集》을 사용하여 중국어를 교수했다. 이때 사용한 것은 《語言自邇集》 初版이었다. 이를 저본으로 한 필사본인 靜嘉堂文庫 소장 필사본, 東洋文庫 소장 필사본이 있을 정도로 당시 《語言自邇集》 初版은 널리 사용되었다.¹⁹⁾ 이때 가와사키 치가요시(川崎近義)가 쓴 동양문고 소장본에서 일부 음운 특징에 대한 표기를 하기 위해 일본어나 특수 문자를 사용한 번역이 시도되었다. 성조 표기를 위해 좌우, 상하에 , , ○와 같은 부호를 붙이거나 권설음이나 설음에 △, ⊕를 첨가하고, 운모에 開口呼, 撮口呼, 合口呼등을 기재한 것이다.²⁰⁾ 그러나 더 의미 있는 것은 《語言自邇集》을 전면적으로 번역한 교재가 출판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중국어학자 히로베 세이(廣部精)는 가타카나로 주음하고 본문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亞細亞言語集 支那官話部》(이하 《亞細亞言語集》로 지칭)라는 이름으로 《語言自邇集》 初版의 번역서를 펴냈다.²¹⁾ 이 책은 1879년에서 1880년에 걸쳐 쓰여졌으며, 총 7권 7책으로

19) 정가당 문고 소장본은 출판 연도와 저자 미상으로, 총 4책 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판의 내용 중 「散語章」, 「問答章」, 「續散語」, 「談論篇」, 「練習燕山平仄篇」, 「言語例略」을 필사하였다. 동양문고 소장본은 동경외국어학교 교사 가와사키 치가요시(川崎近義)가 쓴 것으로 총 1책 중 두 권이 남아있고 출판 연도는 미상이다. 필사한 내용은 「散語章」, 「問答章」이다. 鱒澤彰夫(1988), 〈北京官話教育と《語言自邇集》散語問答明治10年 3月川崎近義氏鈔本〉, 《中國語學》235호, 1988, 147-149쪽. 이외에도, 토마스 웨이드 1867년 편찬한 중국어 서면어 교재인 《文件自邇集》에 대한 필사본(총 10권)도 편찬되었고, 《淸語階梯語言自邇集》(1880), 《新校語言自邇集 散語之部》(1880), 《參訂漢語問答篇國字解》(1880)와 같이 《語言自邇集》의 일부 내용을 번역한 교재가 편찬되었다. Otsuki Miyuki, 《日本明治時期漢語教科書 《亞細亞言語集》研究》, 북경외국어대학 박사학위논문, 2022, 29-33쪽 참조.

20) 이외 유키음 성모나 n, ŋ 운미의 표기, 一, 七, 八, 不의 變調, 輕聲, 重念 등에 특수 부호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鱒澤彰夫, 《新しい時期區分による明治以降中國語教育史の研究》, 早稲田大学 박사학위논문, 2018, 32-35쪽.

21) 히로베 세이(1855~1909)는 1863년 이후 岩井庵 사숙이나 榎本誠吉의 사숙 등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 중국어 교습소 日清社를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메이지 시기 초기 중국 침략을 위한 육군의 중국 파견과 조사 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받아 탄생한 교재이다. 1878년 12월 설립된 참모본부에서는 일본 육군이 중국에서 지리 측량, 지도 제작 등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중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고, 이듬해 도쿄외국어학교 학생을 淸國 유학생으로 채용하여 북경에 파견하였다. 《亞細亞言語集》은 바로 이 시기, 참모본부의 참모장, 대령 등으로부터 출판 자금 원조를 받아 완성한 것이다. (鱒澤彰夫 2018:38-41) 이외에도, 히로베 세이는 1902년 《增訂亞細亞言語集》(이하 《增訂亞細亞》로 지칭)이란 이름의 개정본을 펴냈다. 그는 책의 서두에 오음(五音), 탁음(濁音), 발음(發音), 사성(四聲)과 같은 음운학적 설명을 추가하고 《通俗歐洲述古新編》을 바탕으로 「歐洲奇談」을 싣고, 여섯 글자로 된 문장(六字話), 상용문(常言)등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增訂亞細亞》는 사실상 히로베 세이에 의해 재창작된 교재라 할 수 있다.

중국어 학습 대상으로서의 ‘북경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語言自邇集》번역서의 출판은 일본의 중국어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북경관화가 본격적인 중국어 교육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북경관화 교재가 대량으로 편찬되었다.²²⁾ 교재도 군용 교과서(《兵要支那語》(1894), 《支

세우고 남경관화와 한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日清社가 일본의 西南戰爭으로 문을 닫은 후에는 同人社에 들어가 중국어를 가르쳤다. 이때 그의 친구인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가 그에게 《語言自邇集》를 주며 북경관화 교재를 써볼 것을 권유했고, 히로베 세이는 이에 따라 《語言自邇集》의 번역서인 《亞細亞言語集》을 펴냈다. 六角恒廣 저, 王順洪 역, 《日本近代漢語名師傳》,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34쪽.

22) 일본에서 편찬된 북경관화 교재의 수량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북경관화’이나 ‘북경음’이라고 표제로 단 교재 이외에도 ‘支那語’, ‘淸語’, ‘華語’ 등 다양한 용어가 교재 이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각 교재의 음운, 어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야 북경관화를 기반으로 쓰여졌음을 판단할 수 있고, 교재의 수량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六角恒廣(1988)에 따르면, 메이지 시기 편찬된 중국어 교재만 300여 종이 있고, 청일수호조약 이후 일본에서의 중국어 교육이 북경관화 교육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량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那語速成軍事會話》(1904), 《北清通用軍事會話》(1904) 등), 상업용 교과서(《日本支那 對譯商業日用文例》(1896), 《實用簡易日臺常用會話篇》(1904), 《日清商業作文及會話》(1907) 등), 어휘·어법서(《文法詳論》(1882), 《支那語助詞用法》(1902), 《清語文典》(1905) 등), 사전(《支那聲音字彙》(1902), 《北京正音支那新字典》(1905), 《日華語學辭林》(1906) 등), 시사문(《稱名纂釋補》(1877), 《清國時文類纂》(1901), 《支那交際往來公牘》(1902) 등), 발음 교과서(《日清字音鑑》(1895), 《支那音速知》(1899), 《北京官話聲音譜》(1905) 등), 독해서(《北京官話伊苏普喻言》(1879), 《北京官話今古奇觀》(1904), 《官話北京事情》(1906) 등), 종합 교재(《官話指南》(1882), 《支那語教科書》(1898), 《官話急就篇》(1904) 등), 여성용 교재(《燕京婦語》(1906 추정), 《燕語新編》(1906) 등)로 세분화되었다. (徐麗 2014:33-43) 둘째, 웨이드식 표기법으로 발음을 표기한 교재가 출판되었다. 외래어 표기에는 일반적으로 가타카나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웨이드식 표기를 병기한 것이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웨이드식 표기법을 사용한 일본의 중국어 교재

서 명	출판년도	저자
支那音速知	1899	張廷彦
支那語教科書 發音編	1902	岡本正文
支那聲音字彙	1902	岡本正文
北京官話聲音譜	1905	高橋正二
支那語學案内: 日英對照官話指南	1905	川邊紫石
日清會話捷徑: 北京官話	1906	甲斐清
北京官話万物聲音	1907	瀨上恕治
日華語學辭林	1907	井上翠
官話問答新篇: 日文對照	1908	瀨上恕治
支那語大辭彙	1914	石山福治
聲音之區別: 北京官話	1917	石井良次郎
支那官話字典	1917	善鄰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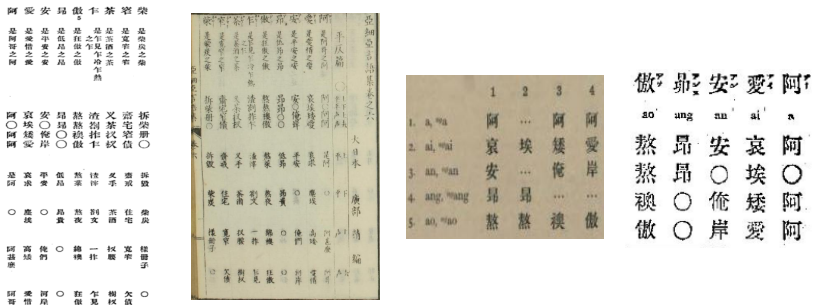
서 명	출판년도	저자
實用支那語教本: 北京官話	1917	本田清人
支那語三箇月速成	1920	文求堂編輯局
支那語の訳方	1922	佐藤留雄
日華會話: 北京官話ローマ字發音付	1925	本田清人
標準支那語字典	1926	佐藤留雄
井上支那語辭典	1932	井上翠
支那語作文 初級編	1932	矢野藤助
支那語小講座	1933	靑陽堂支那局
ポケット支那語辭典	1935	井上翠
實用支那語發音辭典	1937	石山福治
支那語基準會話	1939	宮越健太郎, 杉武夫
華語教科書	1940	奧村義盛
支那語重要單語集	1942	宮越健太郎
支那語作文と文法	1942	矢野藤助

마지막으로, 《語言自邇集》 번역서의 출판이 일본의 중국어 교재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은 여기 제시된 북경화 음절표의 형식을 모방한 다양한 저작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 북경관화 음절표는 동일한 성모, 운모를 갖는 상평, 하평, 상성, 거성의 예시자를 보여주는 것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먼저, 《語言自邇集》 初版의 〈練習燕山平仄編〉을 《亞細亞言語集》에서는 〈平仄編〉이란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增訂亞細亞》에서는 〈練習燕山平仄編〉은 생략되어 있고, 대신 《語言自邇集》 第二版에 실린 SOUND TABLE을 〈音聲分彙〉란 제목으로 번역하여 실었다.

《語言自邇集》 初版의 〈練習燕山平仄編〉에 출현한 420개의 음절과 “A, 是○○之A”²³⁾, 상평, 하평, 상성, 거성의 예시자 및 각각의 예시자가 들어가는 어휘는 《亞細亞言語集》의 〈平仄編〉과 모두 동일하다. 《亞細

23)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A’를 ‘음절 대표자’라고 지칭한다.

《亞言語集》에서는 각 음절의 예시자인 A에 대해 가타카나로 주음을 추가했을 뿐이다. 한편, 《增訂亞細亞》의 〈音聲分彙〉는 〈平仄編〉과 달리 “A, 是〇〇之A”, 각각의 예시자가 들어가는 어휘 부분은 생략되고, 같은 성모, 운모를 갖는 성조별 예시자만 나열되어 있다. 이는, 《語言自邇集》第二版的 SOUND TABLE의 체제와 동일하며, chun음절의 음평에 ‘諄’, t’ei음절의 음평에 ‘忝’을 추가한 것 등을 제외하면 내용도 일치한다.



〈그림 3〉 《語言自邇集》 初版的 〈練習燕山平仄編〉, 《亞細亞言語集》의 〈平仄編〉, 《語言自邇集》 第二版的 〈Sound Table〉, 《增訂亞細亞》의 〈音聲分彙〉

일본에서 중국어 교육이 북경관화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발음 교육’은 매우 중시되었다. 《北京官話文法》(1932)을 지은 何盛三은 북경관화 교육 시작 당시 교육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먼저 〈平仄編〉에 의거하여 정확한 발음을 연습시키고, 충분히 익힌 다음 「談論編」으로 넘어가 더욱 숙달하게 하고, 교수 예가와 히로스게(颯川重寛)가 《紅樓夢》을 강론하고 가와사키 치가요시(川崎近義)가 이를 열성적으로 보좌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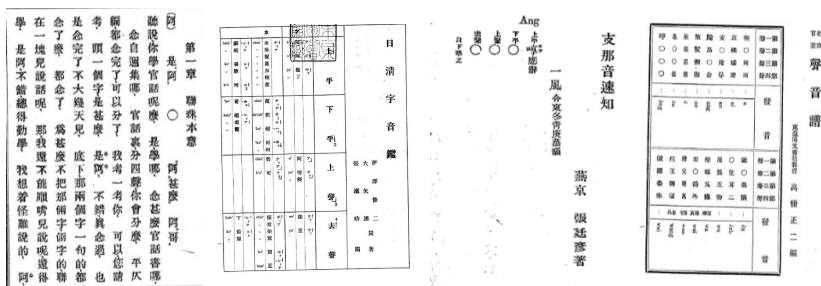
위와 같이 발음 교육은 중국어 교육의 시작점으로, 〈平仄編〉은 북경관화 발음 체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적 기반이 되었다. 이에 따라, 〈平仄

編)의 체제와 내용을 모방한 발음 학습서가 편찬되었다. 《華語跬步》와 《四聲聯珠》가 이에 해당된다. 먼저, 《華語跬步》는 일본 군대에서 중국어 교관을 역임한 오바타 마나수미(御幡雅文)가 편찬한 종합 교재로, 1886년 初版이 발행된 후 1901年版, 1903年版, 1908年版, 1911年版등 수정, 증보판이 거듭하여 나왔다. 모든 판본에는 북경관화 음절표가 등장하나, 모두 제목이 다르고 배열 순서가 다르다. 1901年版에서는 북경관화 음절표를 <北音平仄譜>라 명명하고, 가로는 모음(ア, イ, ウ, エ, オ)에 따라, 세로는 자음(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バ)에 따라 배열했다. 1903年版에서는 <官話平仄編>으로 제목을 붙이고, 1901年版에서 한 단 안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阿(a), 哀(ai), 安(an), 昂(ang), 熬(ao)의 순서로 나열하던 것을 세로축을 기준으로 동일한 행에 위치하게 했다. 1908年版에서는 「訂正官話平仄編」으로 명명했으나, 운모는 阿列音, 哀列音, 安列音, 昂列音, 傲列音, 衣列音, 因列音, 英列音, 烏列音, 餒列音, 恩列音, 哼列音, 歐列音, 額列音, 牙列音, 涯列音, 陽列音, 要列音, 尤列音, 月列音, 原列音, 耶列音, 言列音, 約列音, 用列音, 瓦列音, 外列音, 完列音, 往列音, 魚列音, 勻列音, 我列音, 爲列音, 文列音, 翁列音, 列外音의 순서로 나누고, 성모는 영성모, /k/, /k'/, /s/, /t/, /t'/, /n/, /x/, /p/, /p'/, /m/, /l/, /tʂ/, /tʂ'/, /ʂ/, /ts/, /ts'/, /f/, /ɿ/의 순서로 글자를 나열했다.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r><td>熬昂安哀阿</td><td>平上</td><td>ア</td></tr> <tr><td>熬昂○埃</td><td>平下</td><td>音</td></tr> <tr><td>襖○俺矮阿</td><td>聲上</td><td>○</td></tr> <tr><td>傲○岸愛阿</td><td>聲去</td><td>五</td></tr> </table> <table border="1"> <tr><td>尻康看開卡高剛甘該</td><td>平上</td><td>カ</td></tr> <tr><td>○扛○○○○○○○</td><td>平下</td><td>音</td></tr> <tr><td>考抗研傲○搞擗起改</td><td>聲上</td><td>○</td></tr> <tr><td>旋旋看○○○枉幹概</td><td>聲去</td><td>五</td></tr> </table> <table border="1"> <tr><td>騷桑三斷撒</td><td>平上</td><td>サ</td></tr> <tr><td>○○○歌</td><td>平下</td><td>音</td></tr> <tr><td>掃噪宇○洒</td><td>聲上</td><td>○</td></tr> <tr><td>々裏散賽○</td><td>聲去</td><td>五</td></tr> </table>	熬昂安哀阿	平上	ア	熬昂○埃	平下	音	襖○俺矮阿	聲上	○	傲○岸愛阿	聲去	五	尻康看開卡高剛甘該	平上	カ	○扛○○○○○○○	平下	音	考抗研傲○搞擗起改	聲上	○	旋旋看○○○枉幹概	聲去	五	騷桑三斷撒	平上	サ	○○○歌	平下	音	掃噪宇○洒	聲上	○	々裏散賽○	聲去	五	<table border="1"> <tr><td>空 溝 剎 估 卡 嘎 思 微 屋 揮 阿</td><td>平上</td></tr> <tr><td>○ 狗 ○ 骨 ○ 嘎 ○ 爲 無 益 ○ 阿</td><td>平下</td></tr> <tr><td>孔 狗 ○ 古 ○ 嘎 ○ 委 武 ○ 阿</td><td>聲上</td></tr> <tr><td>空 勾 ○ 固 ○ 嘎 祖 位 物 易 阿</td><td>聲去</td></tr> </table> <table border="1"> <tr><td>瓜 擺 根 窟 團 諒 吟 溫 悠 惡 哀</td><td>平上</td></tr> <tr><td>○ 喉 ○ ○ ○ ○ ○ 文 娃 魚 埃</td><td>平下</td></tr> <tr><td>溝 口 ○ 苦 微 收 ○ 響 瓦 雨 矮</td><td>聲上</td></tr> <tr><td>掛 叩 長 輝 ○ 傲 ○ 問 權 預 愛</td><td>聲去</td></tr> </table> <table border="1"> <tr><td>誇 哥 ○ 規 看 甘 殿 肅 至 音 安</td><td>平上</td></tr> <tr><td>○ 格 ○ ○ ○ ○ ○ ○ 銀 ○ 下</td><td>平下</td></tr> <tr><td>修 各 音 說 斫 越 偶 ○ 鼎 引 能</td><td>聲上</td></tr> <tr><td>踮 個 揸 賞 看 幹 嘸 襲 外 印 岸</td><td>聲去</td></tr> </table>	空 溝 剎 估 卡 嘎 思 微 屋 揮 阿	平上	○ 狗 ○ 骨 ○ 嘎 ○ 爲 無 益 ○ 阿	平下	孔 狗 ○ 古 ○ 嘎 ○ 委 武 ○ 阿	聲上	空 勾 ○ 固 ○ 嘎 祖 位 物 易 阿	聲去	瓜 擺 根 窟 團 諒 吟 溫 悠 惡 哀	平上	○ 喉 ○ ○ ○ ○ ○ 文 娃 魚 埃	平下	溝 口 ○ 苦 微 收 ○ 響 瓦 雨 矮	聲上	掛 叩 長 輝 ○ 傲 ○ 問 權 預 愛	聲去	誇 哥 ○ 規 看 甘 殿 肅 至 音 安	平上	○ 格 ○ ○ ○ ○ ○ ○ 銀 ○ 下	平下	修 各 音 說 斫 越 偶 ○ 鼎 引 能	聲上	踮 個 揸 賞 看 幹 嘸 襲 外 印 岸	聲去	<table border="1"> <tr><td>我 ○ 胎 拾 埃</td><td>平上</td></tr> <tr><td>○ 埋 買 ○ 矮</td><td>平下</td></tr> <tr><td>穿 寶 ○ 矮</td><td>聲上</td></tr> <tr><td>在 寶 太 愛</td><td>聲去</td></tr> </table> <table border="1"> <tr><td>墨 昔 魚 ○ 阿</td><td>平上</td></tr> <tr><td>羅 羅 ○ ○ ○</td><td>平下</td></tr> <tr><td>珀 馬 穿 阿</td><td>聲上</td></tr> <tr><td>○ 墨 羅 阿</td><td>聲去</td></tr> </table> <table border="1"> <tr><td>猶 才 ○ ○ 該</td><td>平上</td></tr> <tr><td>才 夾 ○ ○ 改</td><td>平下</td></tr> <tr><td>影 韻 ○ 韻</td><td>聲上</td></tr> <tr><td>深 韻 耐</td><td>聲去</td></tr> </table> <table border="1"> <tr><td>齊 埃 開 閉</td><td>平上</td></tr> <tr><td>宅 埃 開 閉</td><td>平下</td></tr> <tr><td>穿 埃 開 閉</td><td>聲上</td></tr> <tr><td>微 穿 ○</td><td>聲去</td></tr> </table> <table border="1"> <tr><td>發 流 哈 卡</td><td>平上</td></tr> <tr><td>法 翁 蝦 哈</td><td>平下</td></tr> <tr><td>髮 律 哈</td><td>聲上</td></tr> <tr><td>法 律 哈</td><td>聲去</td></tr> </table>	我 ○ 胎 拾 埃	平上	○ 埋 買 ○ 矮	平下	穿 寶 ○ 矮	聲上	在 寶 太 愛	聲去	墨 昔 魚 ○ 阿	平上	羅 羅 ○ ○ ○	平下	珀 馬 穿 阿	聲上	○ 墨 羅 阿	聲去	猶 才 ○ ○ 該	平上	才 夾 ○ ○ 改	平下	影 韻 ○ 韻	聲上	深 韻 耐	聲去	齊 埃 開 閉	平上	宅 埃 開 閉	平下	穿 埃 開 閉	聲上	微 穿 ○	聲去	發 流 哈 卡	平上	法 翁 蝦 哈	平下	髮 律 哈	聲上	法 律 哈	聲去
熬昂安哀阿	平上	ア																																																																																																				
熬昂○埃	平下	音																																																																																																				
襖○俺矮阿	聲上	○																																																																																																				
傲○岸愛阿	聲去	五																																																																																																				
尻康看開卡高剛甘該	平上	カ																																																																																																				
○扛○○○○○○○	平下	音																																																																																																				
考抗研傲○搞擗起改	聲上	○																																																																																																				
旋旋看○○○枉幹概	聲去	五																																																																																																				
騷桑三斷撒	平上	サ																																																																																																				
○○○歌	平下	音																																																																																																				
掃噪宇○洒	聲上	○																																																																																																				
々裏散賽○	聲去	五																																																																																																				
空 溝 剎 估 卡 嘎 思 微 屋 揮 阿	平上																																																																																																					
○ 狗 ○ 骨 ○ 嘎 ○ 爲 無 益 ○ 阿	平下																																																																																																					
孔 狗 ○ 古 ○ 嘎 ○ 委 武 ○ 阿	聲上																																																																																																					
空 勾 ○ 固 ○ 嘎 祖 位 物 易 阿	聲去																																																																																																					
瓜 擺 根 窟 團 諒 吟 溫 悠 惡 哀	平上																																																																																																					
○ 喉 ○ ○ ○ ○ ○ 文 娃 魚 埃	平下																																																																																																					
溝 口 ○ 苦 微 收 ○ 響 瓦 雨 矮	聲上																																																																																																					
掛 叩 長 輝 ○ 傲 ○ 問 權 預 愛	聲去																																																																																																					
誇 哥 ○ 規 看 甘 殿 肅 至 音 安	平上																																																																																																					
○ 格 ○ ○ ○ ○ ○ ○ 銀 ○ 下	平下																																																																																																					
修 各 音 說 斫 越 偶 ○ 鼎 引 能	聲上																																																																																																					
踮 個 揸 賞 看 幹 嘸 襲 外 印 岸	聲去																																																																																																					
我 ○ 胎 拾 埃	平上																																																																																																					
○ 埋 買 ○ 矮	平下																																																																																																					
穿 寶 ○ 矮	聲上																																																																																																					
在 寶 太 愛	聲去																																																																																																					
墨 昔 魚 ○ 阿	平上																																																																																																					
羅 羅 ○ ○ ○	平下																																																																																																					
珀 馬 穿 阿	聲上																																																																																																					
○ 墨 羅 阿	聲去																																																																																																					
猶 才 ○ ○ 該	平上																																																																																																					
才 夾 ○ ○ 改	平下																																																																																																					
影 韻 ○ 韻	聲上																																																																																																					
深 韻 耐	聲去																																																																																																					
齊 埃 開 閉	平上																																																																																																					
宅 埃 開 閉	平下																																																																																																					
穿 埃 開 閉	聲上																																																																																																					
微 穿 ○	聲去																																																																																																					
發 流 哈 卡	平上																																																																																																					
法 翁 蝦 哈	平下																																																																																																					
髮 律 哈	聲上																																																																																																					
法 律 哈	聲去																																																																																																					

〈그림 4〉 《華語跬步》 1901年版 〈北音平仄譜〉, 1903年版 〈官話平仄編〉, 1908年版 〈訂正官話平仄編〉

다음은 《四聲聯珠》이다. 이 책은 북경대사관의 육군 대위였던 후쿠시마 야스마사(福島安正)가 펴낸 책으로 1886년에 日本 陸軍文庫에서 初版이 발행되었고, 1902년 동경 博文館에서 再版이 발행되었는데 내용은 初版과 대동소이하다.²⁴⁾ 《自邇集平仄編四聲聯珠》이라는 본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語言自邇集》의 〈平仄編〉에 기반하였는데, 총 417개 음절에 대한 각 음절의 대표자와 상평, 하평, 상성, 거성의 예시자가 들어가는 어구, 본문 대화와 주석을 실었으며 총 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5〉 《四聲聯珠》 初版, 《日清字音鑑》, 《支那音速知》, 《北京官話聲音譜》

《華語跬步》나 《四聲聯珠》에서는 각 음절에 대한 가타카나 혹은 웨이드식 주음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해당 예시자의 음절을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語言自邇集》의 〈平仄編〉에 나온 음절이나 예시자에 기반하여 북경관화 음절표를 제시한 교재로 《日清字音鑑》(1895), 《支那音速知》(1899), 《支那語教科書 發音篇》(1902), 《北京官話聲音譜》(1905)등과 같은 발음 교과서가 있다.²⁵⁾ 여기

24) 후쿠시마 야스마사는 1882년 육군 보병 중위 맡은 바 있으며, 참모 본부에서는 그를 조사 과견 업무차 중국에 보냈다. 1883년 육군 보병 대위로 승진한 이후 북경대사관에서 쇼오코 히데즈쿠(紹古英繼)에게 중국어를 배웠다. 쇼오코 히데즈쿠는 《四聲聯珠》의 감수를 맡았는데, 이 책에서 ‘紹古英繼’ 앞에 ‘大清滿洲旗士’란 호칭을 병기한 것으로 보아 만주인으로 추측된다.

제시된 음절별 예시자는 〈平仄編〉과 대동소이하나, 음절의 개수나 음절 배열 순서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日清字音鑑》은 일본어 음독 ㄱ, 力, ㄱ, ㅅ, ㅈ 등에 해당하는 순서로 행을 나누고, 그 중 동일한 성모와 운모를 갖는 글자를 성조에 따라 다시 배열하였다. 《北京官話聲音譜》에서는 a(/a/)로 시작하는 음절, ê(/ɛ/, /ə/)로 시작하는 음절, w(/u/)로 시작하는 음절을 먼저 나열한 후, /x/, /ç/, /ɣ/, /k/, /l/, /m/, /n/등으로 시작하는 음절 순으로 글자를 나열했다. hê(/ɣx/)음절에 대해서는 ‘喝屋’, ju(/ɣɣ/)음절에 대해서는 ‘日屋’, niu(/niou/)음절에 대해서는 ‘奴憂’와 같이 일부 음절에 반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발음 교과서 안의 새로운 배열 방식과 음절 체계는 일본인이 더 학습하기 용이한 순서로 북경관화 발음을 제시한 것으로, 일본인에 의한 《語言自邇集》의 수용과 변용의 과정을 보여준다.

IV. 일본인 편찬의 중국어 교재의 한국 유입과 북경관화에 대한 인식

중국과 정치·외교, 경제적 교류가 가장 빈번했던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중국어 교육이 매우 중시되었다. 고려시대 通文館이 설치되어 중국어 교육을 담당하였고, 조선시대에는 司譯院이 설치되어 갑오경장까지 존속되며 외국어를 구사하는 관리의 양성, 외국어 통번역, 외국어 교재를 편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한편, 19세기 이후 조선의 근대화, 서양 열강의 침략, 일

25) 徐麗(2014)는 룯카쿠 츠네히로(六角恒廣) 편찬의 《中國語教本類集成》, 《中國語辭典集成》 및 하타노 타로(波多野太郎)가 수집, 정리한 《中國語學資料叢刊》, 《中國語文資料彙刊》, 《中國文學語學資料集成》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발음 교과서 총 17권을 나열했다. 그 예로는 상술한 문헌 이외에 《台灣十五音及字母表附八聲符號》(1896), 《台灣十五音及字母詳解》(1896), 《台灣發音學》(1899), 《燕音集》(1900), 《支那官話字音監》(1902) 등이 있다.

제의 식민 지배 등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자, 외국어 교육 상황도 이에 따라 급변하게 된다. 갑오경장 이후 신분제 폐지와 학교 제도 신설에 따라 대중이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관립외국어학교와 같은 외국어 교육 기관에서 중국어 교육이 실시되었으나,²⁶⁾ 조선교육령이 실시된 1910년대, 1920년대에는 우리나라 관공립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이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국내외 취업이나 무역, 독립운동 등의 목적으로 민간에서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존재했으며, 교당이나 강습소, 야학이나 간도의 한국인 설립 사립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²⁷⁾ 한편, 일제가 중국 대륙 진출을 위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고 침략을 본격화하자, 중국에서의 식민 지배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어를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중국어 교육

26) 1895년 5월 <외국어학교관제>가 공포되어 새 학제의 외국어 학교가 정식으로 발족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어 학교, 일어 학교, 한어(漢語, 중국어) 학교, 법어(法語, 프랑스어) 학교, 아어(俄語, 러시아어) 학교, 덕어(德語, 독일어) 학교로 나뉘어 통합되다가 1908년 관립한성외국어학교로 통합되었다. 사역원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반면, 관립외국어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외국어를 교육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 사역원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중국어, 일본어, 만주어, 몽골어와 같은 아시아 언어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관립외국어학교에서의 교육은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은 유럽어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관립외국어학교는 1911년 일제가 조선교육령을 반포함에 따라 폐교되었다. 이광수, 《개화기의 외국어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35-59쪽.

27)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사이의 중국어 교육 상황은 이때 사용된 중국어 교재안의 내용으로부터 추측이 가능하다. 《官話 華語規範》(1915), 《無先生速修中國語自通》(1929)의 대화 내용을 보면 교당, 가정, 강습소, 야학 등에서 수업했는데, 교당에서의 수업은 학교 수업처럼 종으로 수업 시작을 알리고 출석을 확인하고 받아쓰기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기지가 된 간도 및 만주 지역의 동신학교, 명동학교 등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 기관은 독립운동 기지의 역할과 동시에 민족문화를 전수하고 반일사상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사립학교 내에서도 중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중국조선족교육편찬위, 《중국조선족교육사》, 서울: 한국문화사, 1999, 51쪽, 남윤순, 《1910년대, 1920년대 중국어 교재 연구: 《官話 華語教範》(1915), 《無先生速修中國語自通》(1929)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6-29쪽.

을 장려하였다. 1932년 일제는 고등보통학교 규정 第九條에 중국어를 추가하고, 1938년 발표한 제3차 조선교육령의 中學校學制 第十條에서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중국어를 포함시켰다. 이후, 관립전문학교나 사범학교, 중등학교에서 중국어를 확대 실시하였고, 일부 학교에서는 중국어가 필수로 지정되기도 했다.²⁸⁾

서양, 일본의 침략과 이로 인한 영어, 일본어의 접촉, 그리고 중국어 교육, 학습 주체가 민간으로 이동되면서 교재의 체제와 내용에도 전환이 일어났다. 《老乞大》, 《朴通事》로 대표되는 사역원 교재는 무역용 회화 중심, 훈민정음 자모를 사용한 左音, 右音의 이원화된 주음, 언해문 뜻풀이가 수록되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 19세기에 민간에서 편찬된 중국어 교재는 무역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했고, 새로운 자음, 모음이 조합된 이전에는 없던 형식의 주음 표기가 시도되었다.²⁹⁾ 주음에는 가타카나 혹은 웨이드식 표기를 사용하기도 했고, 특히 30년대 이후 편찬된 교재는 일본어로 본문을 번역한 경우도 많다.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주요 중국어 교재의 서지사항과 주음 및 번역에 쓰인 문자, 언어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⁰⁾

28) 동아일보, 1938년 2월 5일, 4월 8일, 4월 23일, 5월 4일 기사 참조.

29)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서는 ts, ts', s, ɿ 표기를 위해 ㄷ, ㄷ', ㄷ, ㅅ를 쓰고, e표기에 ㅅ, l표기에 ㅅ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표기가 시도되었다.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 사용된 표기는 서미령(2011)을 참고할 수 있다.

30)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중국어 교재의 정확한 수량은 알기 어렵다. 김아영·박재연(2018)에 제시된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는 총 44권이 있으며, 기타 김상규(2016), 김아영·김현철(2015)와 같이 당시 독립운동가나 중국어학자에 의해 편찬된 중국어교재가 지속적으로 발굴, 학계에 소개되고 있다.

〈표 3〉 주요 중국어 교재의 주음과 번역에 사용된 문자, 언어

서명	저자	편찬 년도	주음 상황	주음에 사용된 문자	번역에 사용된 언어	내용
《漢語獨學》	宋憲奭	1911	성모, 운모	한글	한국어	숫자, 대명사, 동사 용법 외 連語(날씨, 옷, 음식, 진찰, 교 역 등)
《高等官話華語 精選》	高永完	1913	성모, 운모	한글	한국어	官話平仄編, 문답(접 대, 음식점, 기차포 사기, 여행 등)
《速修漢語自通》	宋憲奭	1915	성모, 운모	한글	한국어	用法部(숫자, 구구법, 월일, 방향, ‘做’자 용 법, ‘要’자 용법 등)
《自習完璧支那語 集成》	宋憲奭	1921	성모, 운모, 성조	한글	한국어	숫자, 계절, 지리 관 련 어휘, 대명사, 형 용사, 동사, 접속사 등
《無先生速修中國 語自通》	白松溪	1929	성모, 운모	한글, 가타카나	한국어, 일본어	숫자, 천문, 지리 관 련 어휘, ‘被’동사 용 례, 동사 응용 예 등
《中語大全》	李祖憲	1933	성모, 운모, 성조	한글	한국어	‘兒’자 용법, ‘了’자 용법, 인칭대명사, 화 폐 도량형 등
《滿洲語舞師 自通》	李春一	1933	성모, 운모	한글, 가타카나	한국어, 일본어	單語之部(방향, 천 문, 지리, 신체 등), 會話之部(손님 접대, 진맥, 길 묻기 등)
《滿洲語講座》	張志映	1933	성모, 운모, 성조	한글, 웨이드식	한국어	四聲, 重念, 단어 및 일상 회화
《支那語大海》	文世榮	1938	성모, 운모	한글, 가타카나	한국어, 일본어	會話 入門, 社會 會 話, 家庭 會話, 단 어 등
《無師速成日鮮滿 洲語自通》	文世榮	1942	성모, 운모	한글, 가타카나	한국어, 일본어	單語編(수사, 계절, 시간, 천문 등), 會 話編(소개, 여행, 매 매, 이발소, 기차 등)

일본에서는 청일수호조약 이후 중국어 교육이 남경관화에서 북경관화로 전환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줄곧 북경관화를 중국어의 표준어로 인식하며, 북경관화음을 주음의 기준으로 삼았다. 일찍이 《洪武正韻譯訓》序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어음이 다르고 오류도 심하여, 신 등으로 하여금 중국의 선생과 학자에게 가서 바로 잡도록 명하시니, 왕래가 일곱 여덟 번에 이르고, 질문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 燕都는 만국이 한데 모이는 땅으로, 오가는 길이 멀어 일찍이 쫓아 물어 밝히고자 한 자가 적지 않았고, 변방과 이역에서 온 사신, 종교인과 군인에 이르기까지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이로써 正俗의 같고 다름을 모두 밝히고자 하였다.³¹⁾

燕都는 수도인 북경을 말한다. 위의 기록으로 《洪武正韻譯訓》이 편찬된 15세기부터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경음을 기준으로 正俗을 판단할 정도로 북경음을 표준음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洪武正韻譯訓》 편찬에 가담한 申叔舟는 북경으로 가서 중국어음을 질문하였으며, 역관 崔世珍 역시 成宗 및 中宗 때 質正官으로 여러 번 중국에 왕래한 바 있다. (안병희 1999, 2002) 사역원에서 편찬된 중국어 교재의 음운 체계 역시 유성음 성모이 무성음으로 변화된 것, 微母 및 疑母의 소실, 見組의 구개음화, 止攝 精莊組와 日母가 ㄹ로 변화된 것, 合口韻尾와 입성운미의 소실 등과 같은 특징이 근대 북경음의 변화와 일치한다. (蔡英純, 2002)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찍이 북경관화를 표준음으로 보고 이에 따라 중국어 교재를 편찬했음을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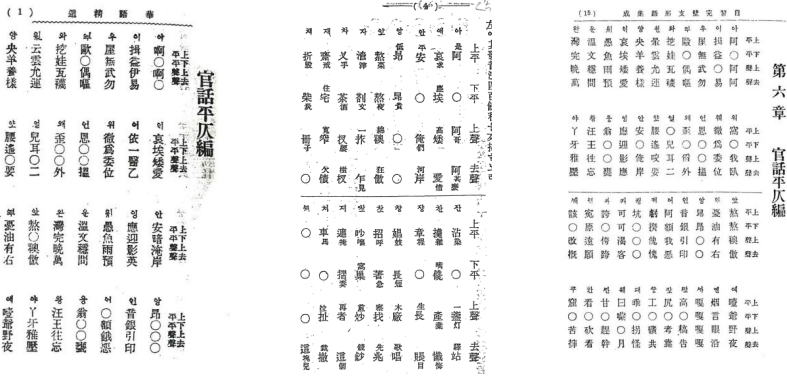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중국어교재에서는 언어학적 기술이 추가되면서 북경관화를 중국어의 표준어라 직접적으로 명시하였다.

31) “然語音既異，傳訛亦甚，乃命臣等，就正中國之先生學士，往來至于七八，所與質之者若干人，燕都爲萬國會同之地，而其往返道途之遠，所嘗與周旋講明者，又爲不少，以至殊方異域之使，釋老卒伍之微，莫不與之相接，以盡正俗異同之變。”

〈표 4〉 일제강점기 중국어교재 안에 나타난 북경관화에 대한 인식

《漢語指南》 1913	중국말을 본래 배우기 어렵다.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의 방언이 있으나, 관화만이 통용된다. 따라서 북경사람과 말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교류하는 데 어렵지 않다.
《速修漢語大成》 1918	한어라 함은 즉 지나의 국어를 말함이라 지나는 강역이 광대하여 각 성에 방언이 불일치함으로 자국 사람들도 필담을 사용하며 통역을 필요로 하나 관화는 사방에 통용하여 각 공서와 각 사회에 무난히 보급되는 고로 본 책은 완전히 관화, 즉 북경어를 표준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中語大全》 1933	관화는 북평관화(북경관화)를 말한다.
《支那語大海》 1938	이 책은 지나 및 만주국의 표준어인 북경관화를 독학 연구하고자 하는 분을 위하여 편찬한 것이다.

일본에서 북경관화 교육으로 전환된 뒤 북경관화 음절표가 교재에 등장하거나, 북경관화 발음 교과서가 많이 편찬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발음 교과서가 편찬되거나, 교재 안에 음절표를 수록한 경우가 드물었다. 사실, 16세기 초 편찬된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에서 방점으로 성조를 기록한 이후, 일제강점기에 와서 《支那語集成》(1921), 《漢語指南》(1913), 《速修漢語自通》(1922), 《中語大全》(1934)에서 일부 한자에 성조를 기록한 것이 전부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 학습시 성조 학습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중국어 교재의 편찬 수준이 높지 않아서 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 중 북경관화 음절표를 제시한 문헌으로는 《華語精選》, 《速修漢語自通》, 《支那語集成》이 있다. 그런데, 여기 제시된 예시자는 《語言自邇集》〈平仄編〉의 예시자와 거의 일치한다.



〈그림 6〉 《華語精選》 〈官話平仄編〉, 《速修漢語自通》 〈支那音四聲平仄編〉, 《支那語集成》 〈官話平仄編〉

《華語精選》 〈官話平仄編〉은 총 338개, 《速修漢語自通》 〈支那音四聲平仄編〉에는 총 413개, 《支那語集成》 〈官話平仄編〉에는 총 365개 음절이 수록되어 있다. 《華語精選》 〈官話平仄編〉과 《支那語集成》 〈官話平仄編〉는 음절 배열 순서가 유사하나, 예시자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速修漢語自通》 〈支那音四聲平仄編〉는 위 두 문헌과 음절 배열 순서가 상이하고, 해당 예시자가 들어가는 어휘를 함께 배열했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북경관화 음절표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 관립한어학교 설립 당시 《亞細亞言語集》, 《官話指南》, 《增訂亞細亞言語集》, 《官話急就編》와 같은 일본인 편찬의 중국어 교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되었는데, 필자는 이 중 《亞細亞言語集》이나 《增訂亞細亞言語集》에 나타난 북경관화 음절표를 보고 그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 본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亞細亞言語集》에서 썼던 〈平仄編〉이란 제목을 우리나라 중국어 교재에서도 계승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語言自邇集》을 《亞細亞言語集》나 《增訂亞細亞》에서 번역할 때 새로 추가한 예시자를 우리나라 교재가 그대로 모방하여 썼다. 《語言自邇集》의 /tʂun/ 음절에는 ‘准’만 출현하나, 《亞細亞言語集》나 《增

訂亞細亞》에서는 음평의 위치에 ‘諄’을 추가하였다. 또, 《語言自邇集》의 /t'ei/음절에는 거성에 ‘特’만 배열되었으나, 《亞細亞言語集》나 《增訂亞細亞》에서는 음평에 ‘忒(혹은 忒)’을 추가했는데, 《華語精選》, 《速修漢語自通》, 《支那語集成》도 모두 ‘諄’과 ‘特’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국어 교재 안의 북경관화 음절표가 일본인이 편찬한 《亞細亞言語集》이나 《增訂亞細亞》를 모방했음을 증거해 주며, 《增訂亞細亞》의 음절표는 《亞細亞言語集》를 따랐으므로, 《亞細亞言語集》은 우리나라 중국어 교재 북경관화 음절표의 기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V. 한·중·일 중국어 교재에 나타난 북경관화 음절표의 계승 양상과 음운적 차이

1. 한·중·일 중국어 교재 북경관화 음절표

본 장에서는 《語言自邇集》 및 일본, 한국의 중국어 교재 안의 북경관화 음절표의 제목, 음절 수, 주음, 배열 방식 및 예시자 순서를 정리, 비교 분석하고 그 음운적 차이를 고찰하여, 《語言自邇集》이라는 재중 서양인 저작 중국어 교재에서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의 전승과 변용 양상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語言自邇集》 初版와 第二版의 음절 개수와 내용은 동일하다. 初版에서는 “A, 是○○之A”라고 할 때의 ‘A’에 해당하는 각 음절의 대표자를 설정해놓았다는 점이 다르다.(「그림 2」 참조) 《亞細亞言語集》은 《語言自邇集》 初版의 〈TONE EXERCISES〉의 모든 음절과 배열 방식, 순서, 예시자 포함된 어휘를 모두 그대로 계승하였다. 다만, 일부 예시자에 대해 수정하였는데, /tʂun/음절에 음평자로 ‘諄’, /t'ei/음절 ‘忒’를 추가하고, /sa/음절의 ‘薩’을 삭제하였다. 한편, 《增訂亞細亞》는 《亞細亞言語

集》〈平仄編〉의 “A, 是〇〇之A”와 음절 예시자가 포함된 어휘 부분이 생략하였고, 음절별 대표자와 이에 대한 가타카나 주음, 각 음절의 예시자를 실었다. 또한, 각 음절의 예시자는 〈平仄編〉과 동일하다. 각 음절의 예시자를 실는 방식은 《語言自邇集》 初版에는 출현하지 않고, 第二版의 〈SOUND TABLE〉에서 나타난 방식이다. 따라서, 《增訂亞細亞》〈音聲分彙〉는 《語言自邇集》 第二版 〈SOUND TABLE〉의 체제를 따르되, 내용, 즉 예시자는 《亞細亞言語集》〈平仄編〉을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한·중·일 중국어 교재 북경관화 음절표 특징 정리

중국 (서양인 편찬)									
서명	《語言自邇集》 初版					《語言自邇集》 第二版			
제목	TONE EXERCISES 〈練習燕山平仄編〉					THE TONE EXERCISES 〈練習燕山平仄編〉			
음절 수	420개					420개			
주음	웨이드식					웨이드식			
배열 방식	음절 예시자 및 예시자 포함 어휘					음절 예시자			
예시자 순서	[대표자] 阿, 哀, 安, 昂, 熬, 乍, 茶, 窄, 柴 [1성 ³² 예시자] 阿, 哀, 安, 昂, 熬, 渣, 叉, 齋, 拆					阿, 哀, 安, 昂, 熬, 渣, 叉, 齋, 拆			
일 본					한 국				
서명	《亞細亞》	《增訂亞細亞》	《跬步》 1901	《跬步》 1903	《跬步》 1908	《四聲聯珠》	《華語精選》	《速修漢語自通》	《支那語集成》
제목	〈平仄編〉	〈音聲分彙〉	〈北音平仄譜〉	〈官話平仄編〉	〈訂正官話平仄編〉	-	〈官話平仄編〉	〈支那音四聲平仄編〉	〈官話平仄編〉
음절 수	420개	420개	409개	407개	410개	417개	338개	413개	365개
주음	가타카나	웨이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한글	한글	한글
배열 방식	음절 예시자 및 예시자 포함 어휘	음절 예시자	음절 예시자	음절 예시자	음절 예시자	음절 예시자 및 예시자 포함 어휘	음절 예시자	음절 예시자 및 예시자 포함 어휘	음절 예시자

《華語跬步》 1901年版, 1903年版, 1908年版的 북경관화 음절표의 배열 순서는 《亞細亞言語集》의 판본과 매우 상이하다. 1901年版은 가로는 모음(ア, イ, ウ, エ, オ)에 따라, 세로는 자음(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バ)에 따라 배열했고, 1903年版은 영성모, /k/, /k'/, /s/, /s'/, /c/ 등의 순서로 배열하고, 1908年版은 阿列音, 哀列音, 安列音, 昂列音 등 운모를 기준으로 배열하였다. 이런 조치는 일본인 학습자가 쉽게 북경관화 음절을 익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1908年版은 동일한 음절에 두 세트의 예시자를 싣기도 했다. 예를 들어, 衣列音의 /tɕ'i/에 精組(七, 齊, 〇, 賊)와 見組(期, 奇, 起, 氣)의 예시자 두 세트를 싣어 중고음에서 연원이 다르지만 동일한 발음으로 읽게 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³³⁾ 그러나, /tɕun/음절에 음평자로 '諄', /t'ei/음절 '恚'를 추가하고, /sa/음절의 '薩'을 삭제는 등 《亞細亞言語集》과 예시자가 일치하므로 내용 면에서는 《亞細亞言語集》을 저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어 교재 중 《速修漢語自通》은 음절별 예시 어휘를 제시했고,³⁴⁾ 《華語精選》과 《支那語集成》은 음절별 예시자만을 들고 있다. 수록된 음절별 예시자만을 보면, 기본적으로 《亞細亞言語集》〈平仄編〉의 예시자와 동일하다. 또한, 음절별 예시자에서 《亞細亞言語集》처럼 '諄', '恚'이 추가되고, '薩'가 생략된 것으로 볼 때 《亞細亞言語集》를 모방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면에서 《亞細亞言語集》와 차이를 보이는데, 첫째, 각 교재의 음절 수가 《亞細亞言語集》와 다르며, 각 교

32) 간혹 해당 음절에 상평자가 없을 경우 다른 성조의 글자가 대표자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1성 예시자만을 예로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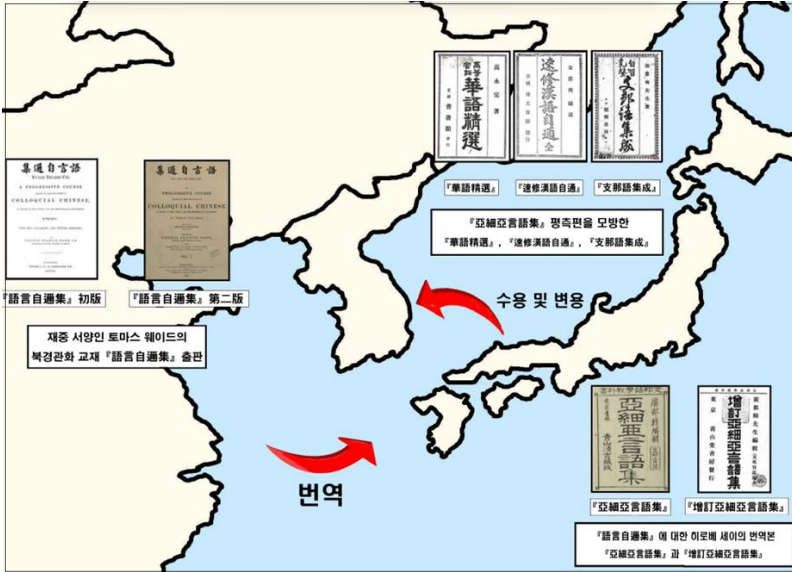
33) 이외에도, 因列音 /ein/음절에 曉匣母인 '欣, 〇, 〇, 嬰'와 精組인 '心, 尋, 〇, 信'을 나란히 쓰거나, 尤列音에 見組인 '兗, 〇, 久, 救'와 精組인 '揪, 〇, 酒, 就', 月列音의 /ɕyɛ/음절에 '靴, 穴, 血, 穴', '削, 〇, 雪, 〇'을 병기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34) 《速修漢語自通》에서 《亞細亞言語集》의 예시 어휘 안의 글자를 바꿔 쓴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亞細亞言語集》의 '樣冊子'를 '冊子'로, '好得很'을 '很好'로, '劃口子'를 '劃口'로 쓴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시 어휘는 《亞細亞言語集》과 일치한다.

재 사이에서도 음절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뒷 장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둘째, 제시된 음절 순서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먼저, 《華語精選》은 ㅇ, ㄱ(ㄱ), ㅋ, ㅅ(ㅅ), ㅈ, ㅊ, ㅌ 등의 순으로 배열하고 이 안에서 운모가 /a/, /ai/, /an/, /aŋ/, /i/, /ɿ/, /iŋ/ 등의 순서로 글자를 배열하였다. 《支那語集成》은 대체적으로 ㅇ, ㄱ, ㄱ, ㅋ, ㅅ, ㅅ, ㅇ 등의 순서로 글자를 배열하였으나, 다소 불규칙한 면도 보인다. 예를 들어, ‘간(尻)’, ‘궤(虧)’, ‘경(坑)’, ‘커(可)’, ‘과(誇)’, ‘웬(寬)’, ‘깨(該)’, ‘예(噫)’, ‘우(憂)’, ‘옌(煙)’, ‘양(昂)’, ‘까(嘎)’ 등과 같이 ㅇ, ㄱ(ㄱ), ㅋ 자음의 글자가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 음절 수와 음절 제시 순서에 있어 변용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체제와 내용 면에 있어 《亞細亞言語集》〈平仄編〉을 따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과 일본의 북경관화 음절표는 모두 《亞細亞言語集》〈平仄編〉에 근거를 두고 있다. 히로베 세이는 《亞細亞言語集》에서 《語言自邇集》의 각 음절에 대한 예시자에 대해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이렇게 확정된 《亞細亞言語集》의 음절별 예시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편찬된 중국어 교재의 북경관화 음절표의 예시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학습자가 학습하기 쉽게 한글 자모 순으로 배열하거나, 일본인 학습자를 위해 특정 가타카나 순으로 배열하기도 했는데, 변용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語言自邇集》에서 태동된 북경관화 음절표를 모방하여 《亞細亞言語集》과 《增訂亞細亞》의 음절표가 편찬되었고, 일본에서 이 체제와 내용을 계승하되, 변용한 모습의 다양한 음절표와 발음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亞細亞言語集》과 《增訂亞細亞》의 음절표를 모방하되, 음절 수와 음절 제시 순서에 있어서는 변화를 주었다.

이는 재중 서양인에 의해 북경관화에 대한 지식의 기틀이 마련되고 일본인에 의해 번역된 지식이 다시 한국에 유입되어 북경관화를 인식하는 기반이 되는, 동아시아 내 지식의 생성과 흐름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북경관화 음운 체계를 제시하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의 일본과 한국에서의 수용과 변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림 7〉 근현대시기 중국, 일본, 한국의 중국어 교재의 흐름

2.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중국어 교재에 나타난 북경관화음의 변화

《亞細亞言語集》이 출판된 이후 일본과 우리나라의 중국어 교재에서는 공통적으로 북경관화 음절표에 음절 개수가 감소되어 있다.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북경관화에 일부 음운이 소실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중국어 교재는 《亞細亞言語集》의 판본을 제외하고 음절별 예시자에 대한 주음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중국어 교재는 공통적으로 한글로 주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亞細亞言語集》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음절을 삭제했는지 파악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華語精選》, 《速修漢語自通》, 《支那語集成》에 제시된 북경관화 음절표에서 공통적으로 삭제된 음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華語精選》에서는 《亞細亞言語集》에 제시된 음절 중 /k'a/(卡), /kei/(給), /k'ei/(刻), /tei/(鏹), /tʂɿ/(這), /tsei/(賊), /həŋ/(哼), /səŋ/(僧)

등 많은 음절이 삭제되어 있다. 《亞細亞言語集》이 편찬되었을 때도 존재하였으며, 현대 표준중국어에도 존재하는 이 음절들이 왜 《華語精選》에서는 출현하지 않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저자의 심음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당시 중국어 교재가 엄격한 감수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한편, 《速修漢語自通》은 우리나라 중국어 교재 중에 유일하게 예시자 포함 어휘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 중 /tɕ'yo/, /tɕ'o/, /eyo/, /nye/, /nyo/ 등의 음절이 삭제되어 있고, 《支那語集成》에서는 /iai/, /yo/, /eyo/, /tɕ'o/, /nio/, /nyo/ 등의 음절이 삭제되어 있다. 한국의 중국어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삭제된 음절로는 《語言自邇集》에서 ch'o(/tɕ'o/, 擱)음절과 hsi'o(/cio/, 學), nio(/nio/, 虐), hsüo(/eyo/, 學) 등과 같은 음절이 있는데, 이 음절들의 변화 과정을 동시대 문헌과 비교하여 분석해보겠다. 비교 대상 문헌은 *A grammar of the Chinese colloquial language commonly called the Mandarin dialect*(1864), *A Chinese and English Vocabulary in the Pekinese Dialect*(1871), *A pocket dictionary (Chinese-English) and Pekingese syllabary*(1891), *A Chinese-English Dictionary*(1892), 《京音字彙》(1912경), 《國音常用字彙》(1932)등을 활용할 것이다.

1) 擱의 독음

‘擱’은 《語言自邇集》에서 o(/o/)와 uo(/uo/)운모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ch'o에 해당하는 음절의 ‘擱’을 우리나라 중국어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취’로 주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는 ‘ㄑ’개음이 있는 형태의 운모로, ‘취’로 주음한 것은 ‘擱’가 /uo/로 읽혔음을 보여준다. 이 글자는 江攝 覺韻 初母字인데, 현대 표준중국어에서 운모는 /uo/이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문헌에서 대부분 o로 기록되었으며, uo로 표기된 경우가 매우 드물다. 동시대 문헌에서는 宕江攝 권설성모자 운모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표 6〉 宕江攝 권설성모자 운모 표기 양상

예자	성모	<i>Mandarin Dialect</i> 1864	<i>Pekinese Dialect</i> 1871	<i>Pekingese syllabary</i> 1891	<i>A Chinese-English Dictionary</i> 1892	京音字彙 1912경	國音常用字彙 1932
擲	tʂʰ	o	o	o	uo	uo, ㄨㄛ	-
桌	tʂ	o	o	o	o	o, ㄨㄛ	uo, ㄨㄛ
說	ʂ	o	o	o	o	o, ㄨㄛ	uo, ㄨㄛ
若	ʐ	o	o	o	o	uo, ㄨㄛ	uo, ㄨㄛ

서양인이 편찬한 문헌 중 유일하게 *A Chinese-English Dictionary*에서 ‘擲’의 운모가 /uo/로 나타난다. 20세기 초 편찬된 중국 문헌 중 ‘擲’이나 ‘若’같이 /tʂʰ/, /ʐ/성모를 갖는 글자의 운모가 /uo/로 기록되었다. 《國音常用字彙》에서는 ‘擲’이 출현하지 않으나, 《語言自邇集》에서 동일하게 /o/운모를 갖는 ‘緯’의 운모가 uo(ㄨㄛ)로 기록되었으며, /tʂʰ/, /tʂ/, /ʐ/성모를 갖는 글자의 운모도 모두 /uo/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 글자들은 20세기 초에 모두 u개음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 /io/ 운모

io(/io/)운모를 갖는 글자는 일부 宕江攝 入聲字로, 《語言自邇集》에서 io운모는 /te/, /teʰ/, /e/, /l/, /n/, 영성모와 결합한다. 그 예자로 각각 ‘角’, ‘却’, ‘學’, ‘略’, ‘虐’, ‘約’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io/운모가 성모와 결합하는 양상은 문헌마다 매우 다르다.

*A Chinese-English Dictionary*에서 성모와 /io/의 결합 양상은 《語言自邇集》과 동일하나, *Pekinese Dialect*에서는 /te/, /teʰ/, /l/, 영성모와 결합하고, 시기적으로 더 앞선 *Mandarin Dialect*에서는 /n/, 영성모와만 결합한다. 한편, *Pekingese syllabary*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표 7〉 문헌별 /io/운모와 성모의 결합 양상

Mandarin Dialect 1864	Pekinese Dialect 1871	Pekingese syllabary 1891	A Chinese-English Dictionary 1892	京音字彙 1912경	國音常用字彙 1932
nio, yo	chio, ch'io, lio, yo	-	chio, ch'io, hsio, lio, nio, yo	-	io, 一ㄛ(唷)

웨이드의 음절에서 발견되는 몇몇 소리들은 소실되었는데, chio, ch'io, chüo, ch'üo, chuo, ch'uo, hsio, hsüo, lüo, nio, nüo, yo이다. 일부 선생님들이 사용하여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모방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³⁵⁾

宕江攝入聲字의 운모를 /u/운미가 있는 형식으로 읽는 것은 白讀, /io/와 같이 운미가 없는 형식으로 읽는 것은 文讀에 속한다. 따라서, 〈표 8〉은 /io/라는 문독음을 얼마나 반영했느냐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위의 기술에서는 《pekingese syllabary》가 쓰여진 19세기 후반 io(/io/)는 거의 소실되어 발음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위에서 열거한 《京音字彙》나 《國音常用字彙》와 같은 문헌에는 감탄사인 ‘唷’만이 /io/로 읽히며, /io/운모는 출현하지 않는다. 이로 볼 때, /io/는 19세기 후반 거의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3) /yo/ 운모

《語言自邇集》의 üo(/yo/)는 /io/와 동일하게 /te/, /te'/, /e/, /l/, /n/와 결합한다. 그 예로, ‘角’, ‘却’, ‘學’, ‘略’, ‘虐’, ‘約’와 같은 宕江攝入聲

35) “A few sounds found in Wade’s Syllabary are however omitted, as chio, ch'io, chüo, ch'üo, chuo, ch'uo, hsio, hsüo, lüo, nio, nüo, yo. There may be considered as rather affected pronunciations used by some teachers, which it is quite as well not to imitate.”, Chancey Goodrich(1923), 《Pocket Dictionary》, Shanghai: Presbyterian Mission Press, vi쪽.

字를 들 수 있다. 중국의 역대 운서 중 《李氏音鑑》(1810)에서 /yo/가 출현하는데, 이는 o의 원순성이介音에 영향을 미쳐 io > yo로 변화한 것이다. (高曉紅 2009:103)

〈표 8〉 문헌별 /yo/운모와 성모의 결합 양상

Mandarin Dialect 1864	Pekinese Dialect 1871	Pekingese syllabary 1891	A Chinese-English Dictionary 1892	京音字彙 1912경	國音常用字彙 1932
-	-	-	ch'üo, ch'üo, hs'üo, l'üo	-	-

동시대 문헌에서는 /yo/가 거의 출현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A *Chinese-English Dictionary*에 /yo/가 출현하는데, 이 사전에서는 /io/도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다소 보수적인 음운 체계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 절에서 살펴본 *Pekingese syllabary*의 기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io(/io/)나 üo(/yo/)는 거의 발음되지 않았다. üo(/yo/)는 io(/io/)운모보다 드물게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경관화에서 io(/io/)보다 더 일찍 소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술한 것처럼, 한국의 중국어 교재 안의 북경관화 음절표에서는 宕江攝 권설성모 入聲字에 u개음이 첨가되고, /io/나 /yo/운모를 갖는 음절을 삭제하는 등, 일본의 중국어 교재보다 좀 더 적극적인 변용이 일어났다. 왜 그러했을까? 《華語精選》가 《亞細亞言語集》나 《華語跬步》보다 늦게 출판되어서 그간의 북경관화 음운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보다 좀 더 일찍이 북경관화를 표준음으로 인식하여 이를 기준으로 주음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우리나라에서는 《亞細亞言語集》을 통해 북경관화 음절표의 존재를 인식하고, 당시 변화한 북경관화 음운 체계에 따라 이를 변용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Ⅵ. 맺는말

근현대시기 동아시아의 ‘서세동점’이라는 거대한 물결과 이로 인한 ‘식민 지배’는 가장 학문적으로 근대화된 ‘지식의 생성자’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용자’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중국어에 대한 지식은 재중 서양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기술되었고, 근대화와 식민 지배를 동시에 피했던 일본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된 후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근현대시기 동아시아 지식의 흐름을 ‘중국어 교재’를 기반으로 재조명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학계에서 시도된 바 없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가 문헌 자체의 성격과 세부 내용을 고증하는 데 집중되었다면,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헌이나 언어 현상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재중 외교관이었던 토마스 웨이드의 저서 《語言自邇集》이 북경관화의 대표적인 교재로 인정받은 이후, 중국에서는 웨이드식 표기법과 북경관화를 기반으로 한 많은 교재가 편찬되었다. 1871년 청일수호조규를 통해 북경관화 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군사 활동을 위해 북경관화 학습에 열을 올린 일본은 《語言自邇集》의 번역본 《亞細亞言語集》을 편찬하였으며, 여기 실린 북경관화 음절표를 모방하여 《華語跬步》, 《四聲聯珠》 등과 같은 책이 편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립외국어학교에서 최초로 민간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亞細亞言語集》, 《增訂亞細亞言語集》, 《官話指南》등 일본에서 들여온 중국어 교재를 접촉하였는데, 이때 《亞細亞言語集》을 통해 북경관화 음절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모방하여 중국어 교재에 실었다.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 중 《華語精選》, 《速修漢語自通》, 《支那語集成》에 북경관화 음절표가 등장하는데, 《亞細亞言語集》과 비교해보았을 때 宥江攝 권설성모 入聲字에 u개음이 첨가되고, /io/나 /yo/운모를 갖는 음절을 삭제하는 등 20세기 초 북경관화 음운 체계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어 교재, 그 중 《語言自邇集》에 나타난 북경관화 음절 표가 일본에서 번역되고 한국에 유입, 변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근현대 시기에 재중 서양인에 의해 편찬된 중국어 교재와 일본,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교재의 수량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재중 서양인, 일본, 우리나라 사이에 중국어 교재를 매개로 한 중국어 지식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인 네트워크, 출판업, 서지사항 등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되어야 지식의 경로와 전승 양상이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추후 더욱 많은 교재, 이와 연관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근현대 동아시아에서의 지식의 흐름을 분명히 밝히는데 본 연구가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 중국조선족교육편찬위, 《중국조선족교육사》, 서울: 한국문화사, 1999.
 教育部國語統一籌備委員會, 《國音常用字彙》, 北京: 商務印書館, 1932.
 王禮華, 吳穎, 《近代來化外交官漢語教材研究》,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5.
 王禮華, 吳穎, 《近代海官洋員漢語教材研究》,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6.
 六角恒廣 著, 王順洪 譯, 《日本近代漢語名師傳》,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張功臣, 《洋人舊事: 影響近代中國歷史的外國人》, 北京: 新華出版社, 2008.
 周建設, 《京音字彙》,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15.
 구현아, 〈清末民初 北京官話 교재에 나타난 웨이드식 표기의 특징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1호, 2020.
 구현아, 〈Thomas Wade 《語言自邇集》 〈TONE EXERCISES〉에 대한 廣

- 部 精 《亞細亞言語集》〈平仄編〉과 일본의 중국어사전 안의 표기 양상에 대하여), 《중국학보》 105호, 2023.
- 김동기, 《일본의 근대와 번역》, 서울: 시대와 철학, 2003.
-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서울: 소명출판, 2010.
- 이광숙, 《개화기의 외국어교육 1883~191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김상규,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중국어교육의 관계: 《中語大全》著者李祖憲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중국어문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6.
- 김찬, 김범준, 〈개항기 세관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廈門의 경우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0호, 2009.
- 김아영·김현철, 〈열운 장지영의 중국어교육 및 열운문고 소장 중국어학습서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93호, 2015.
- 김아영·박재연, 〈일제강점기 한국 출판 중국어학습서와 국내의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110호, 2018.
- 남윤순, 《1910년대, 1920년대 중국어 교재 연구: 《官話 華語教範》(1915), 《無先生速修中國語自通》(1929)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서미령,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의 발음 표기 양상〉, 《중국어문학지》 38호, 2011.
- 소은희, 신은희, 〈日本殖民地時期第三次朝鮮教育令與漢語教育政策: 以東亞日報、朝鮮日報相關報道爲研究材料〉, 《중국문화연구》 제17집, 2010.
- 신원철·구현아·노혜정, 〈《어언자이집(語言自邇集)》제2판 서문 역해〉, 《중국어문논역총간》 40호, 2021.
- 山脇悌二郎, 《長崎の唐人貿易》, 東京: 吉川弘文館, 1964.
- 六角恒廣, 《中國語教育史の研究》, 東京: 東方書店, 1988.
- 林陸朗, 《長崎唐通事一大通事林道榮とその周辺一》, 東京: 吉川弘文館,

2000.

安秉禧, 〈崔世珍의 生涯와 年譜〉, 《규장각》 22, 1999.

안병희, 〈申叔舟의 생애와 학문〉, 《새국어생활》 제12권 제 3호, 2002.

徐麗, 《日本明治時期漢語教科書研究》, 北京外國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邵燕梅, 〈近代對日漢語教材《華語跬步》北京話語音系統—兼與《語言自邇集》語音之觀照〉, 《現代語文》 第7期, 2023.

周佳偉, 《日本明治時期漢語教科書《華語跬步》研究》, 四川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22.

内田慶市, 〈誦讀華英通用·凡例〉, 《近代東西語言文化接觸研究》, 大阪: 關西大學文學部, 2001.

奥村 佳代子, 〈近世日本における中国語受容の一端 —岡島冠山によって紹介された「唐話」—〉, 《中國語學》 248號, 2001.

六角恒廣, 〈北京官話教育の開始〉, 《早稻田商學》 第365號, 1984.

鱒澤彰夫, 〈北京官話教育と《語言自邇集散語問答明治10年 3月川崎近義氏鈔本》〉, 《中國語學》 235호, 1988.

鱒澤彰夫, 《新しい時期区分による明治以降中国語教育史の研究》, 早稲田大学 博士學位論文, 2018.

朱田安, 〈深見玄岱について —近世日本における中国語の受容に関する一考察—〉, 《千葉商大紀要要》 41, 2004.

仲谷健太郎, 〈前近代日本の国語教育をめぐって〉, 《宮城教育大學教職大学院紀要》, 第4号 2022.

中嶋幹起, 〈唐通事の担った初期中国語教育〉, 《東京外国語大学史—独立百周年(建. 学百二十六年)記念—》, 東京外国語大学史編纂委員会, 1999.

中村雅之, 〈唐話纂要の仮名音注について〉, 《KOTONOHA》 156, 2015.

Otsuki Miyuki(大槻美幸), 《日本明治時期漢語教科書《亞細亞言語集》研究》, 北京外國語大學 博士學位論文, 2022.

Bernhard Karlgren, *A mandarin phonetic reader in the Pekinese dialect*,

Stockholm: K.B. Norstedt & Söner, 1918.

Joseph Edkins, *A grammar of the Chinese colloquial language commonly called the Mandarin dialect*, Shanghai: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64.

George Carter Stent, *A Chinese and English Vocabulary in the Pekinese Dialect*, Printed and Published at the Customs Press, 1871.

Goodrich Chauncey, *A pocket dictionary (Chinese-English) and Pekingese syllabary*, Shanghai: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91.

Herbert Allen Giles, *A Chinese-English Dictionary*, Kelly & Walsh, limited; London, B. Quaritch, 1892.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 'Walter Hillier'

기독일보(<https://kr.christianitydaily.com/>), '선교사 모리슨, 중국어 성경 번역에 착수하다'

대한인쇄문화협회(<https://http://www.print.or.kr/>), '[근대] 서양인쇄술의 전래'.

<Abstract>

The great wave of "Westernization" and subsequent "colonization" of East Asia in the modern era created a structure of "knowledge producers" who were the most academically modernized and "receivers" who had no choice but to accept it. As a result, knowledge about Chinese was first described by Westerners in China, and then actively adopted by Japan, which sought to modernize and colonize at the same time, before being introduced to Korea. Re-examining the flow of knowledge in East Asia during the modern era based on 'Chinese textbooks' is a new research method that has not been attempted in

academia until now. Wherea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nature and details of the texts themselves, this study enables a more multifaceted and in-depth study of a text or linguistic phenomenon through an understanding of its historical context.

After Thomas Wade's book, *Yü yen tzu êrh chi*, was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textbook of Pekingese, many textbooks based on Wade's system and Pekingese were compiled in China. Japan, which realized the necessity of Pekingese in diplomatic negotiations through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Qing-Japanese Defense and Protocol in 1871, and was eager to learn Pekingese for military activities to invade the Chinese continent, compiled the *Yaxiya Yanyuji*, a translation of the Pekingese Language Collection, and books such as *Huayu Kuibu* and *Sisheng Lianzhu* were compiled by imitating the Pekingese syllabary. In Korea, the government foreign language schools were the first to provide Chinese education for the civilian population and came into contact with Chinese textbooks imported from Japan, such as *Yaxiya Yanyuji*, *Zhengding Yaxiya Yanyuji*, and *Guanhua Zhinan*, and after Korea became a colony, Chinese was strategically taught in order to mobilize the Korean people for the colonial project of China's expansion into the continent, and a vast amount of Japanese Chinese textbooks were imported. Korea also recognized the existence of Pekingese syllabary through the *Yaxiya Yanyuji*, and Pekingese syllabary was recorded in the *Huayu Jingxuan*, *Suxiu Hanyu Zitong*, *Zhinayu Jicheng*, but when compared to *Yaxiya Yanyuji*, the Pekingese syllabary was modified in the early 20th century to fit the Pekingese phonological system, such as the addition of the u initial in *Danjiang She* entering tone, and the deletion of syllables with /io/ or /yo/ final.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by which the Beijing Mandarin

Chinese syllables appearing in Chinese textbooks, especially the *Yü yen tzu êrh chi*, were translated from Japan and introduced into and transformed into Korea. Since the number of Chinese textbooks compiled by Westerners residing in China and those compiled in Japan and Korea during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 is so vast, in order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flow of Chinese language knowledge through Chinese textbooks among Westerners residing in China, Japan, and Korea, this study is required. A comprehensive comparison of all data will be necessary. In addition, facts other than the content, such as the network of intellectuals at the time, publishing industry, and bibliographic information, should also be studied to further clarify the path and transmission pattern of knowledge. I conclude this article with the hope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small starting point in clarifying the flow of knowledge in modern and contemporary East Asia through a closer look at more textbooks and related historical backgrounds in the future.

Key Words : 북경관화(Peking Mandarin), 북경관화 음절표(Pekingese Syllabary), 평측편(Pingze Bian), 어언자이집(*Yaxiya Yanyuji*), 토마스 웨이드(Thomas Wade), 아세아언어집(*Yaxiya Yanyuji*), 히로베 세이(Hirobe Sei), 화어규보(*Huayu Kuibu*), 사성련주(Sisheng Lianzhu), 화어정선(*Huayu Jingxuan*), 속수한어자통(*Suxiu Hanyu Zitong*), 지나어집성(*Zhinayu Jicheng*)

